

2024 한강명산트레킹

함께 걷길

6차

2024. 09.21 (토)
남산공원 백범광장 ~ 장충단공원



주최 · 주관 |  서울특별시체육회
SEOUL SPORTS COUNCIL - KOREA SPORT LEADER

후원 |  서울특별시

Seoulsports SPORTS · SEOUL · CULTURE 2024 09+10 No.391

서울스포츠

SPORTS SEOUL CULTURE

스포츠를 통해
더욱 발전해나가는 인류



9 7727 33 632 0 0 1
ISSN 2733-6328

09+10
2024 No.391

테니스와 배드민턴의 공통점은?
바로 ... 라켓입니다.
라켓 스포츠로 건강을 지켜요!



@wonee828



@positive_teacher_k



@dailydesign_plan



@tennis_riri



@ahn_dae_won



@doosan7b



@strokebaby81

운동을 하는 서울시민들의 인증 사진을 기다립니다.

다음 11+12월호 주제는 '겨울 스포츠'입니다. 겨울 스포츠를 즐기는 모습을 보여 주세요.

이벤트 안내

참여 방법 본인 인스타그램 채널에 필수 해시태그(#서울스포츠오하운 #서울스포츠이벤트)를 달고 운동 인증 사진을 올려 주세요.

참여 기간 10월 21일(월)까지

당첨 선물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Tall 1잔



@hyunkyuns



cover story

올림픽 정신은 단순한 스포츠 경기를 넘어 인류의 화합과 평화를 추구하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스포츠를 통해 인류가 더욱 발전해 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QR코드를 스캔하면
웹진으로 이동합니다.

06 스포츠가 있는 풍경
2024 파리올림픽
2024 한강 수상스포츠 체험

12 요즘, 스포츠
2024 파리올림픽
① 혁신과 지속가능성
② 2024 파리올림픽을 정리하며
③ 올림픽 이렇게 즐겼다

22 믿고 즐기는 스포츠
몽골에서 온 엠마 씨
“농구를 하며 삶의 태도를 배웠어요”

26 건강한 서울
2024 서바이벌 프로그램

30 인플루언서와 함께
크리에이터
김다민 스케이터와 함께!

34 운동으로 만난 우리
서울시청 복싱팀과 만난
대한권투체육관 시민 복서들

40 뭉치면 한다
서울충무초등학교
국궁교실

44 이슈 공감
지속적이고 경쟁력 있는
스포츠관광 산업을 위해

46 스포츠와 ESG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ESG 경영 사례

48 함께하는 체육회
중랑구체육회

50 우리 동네 체육 대장
중랑구축구협회 소속
워터폴

54 회원종목단체장을 만나다
서울특별시체조협회
장재돈 회장

56 SSC & SSAD 뉴스

2024 파리 올림픽

종합 8위의 역대급 성적 기록

지난 8월 11일, 제33회 파리올림픽이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우리나라는 금메달 13개, 은메달 9개, 동메달 10개를 수확하며 당초 예상치를 훌쩍 뛰어 넘는 종합 8위로 올림픽을 마무리했다. 총, 갑, 활에 발차기로 무더위를 날리는 역대급 성적을 올렸지만 구기 종목의 부진과 협회의 운영 방식에 대한 논란 등 숙제도 남긴 대회였다.

사진 연합뉴스



양지인(한국체육대학교) 선수가 파리올림픽 '사격 여자 25m 권총' 결선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뒤 메달에 입을 맞추고 있다.



'스포츠크라이밍 남자 콤바인 볼더링 준결승'에 출전한 이도현(서울시청) 선수가 코스를 공략하고 있다.

파리올림픽 '펜싱 남자 사브르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구본길(국민체육진흥공단) 선수가 8강전에서 캐나다에 승리한 뒤 포효하고 있다.

스포츠가 있는 풍경



르브루제 클라이밍 경기장에서 열린 파리올림픽 '스포츠크라이밍 여자 콤바인 준결승'에 출전한 서채현(서울시청) 선수가 인공암벽을 오르고 있다.





파리올림픽 '핸드볼 여자 조별리그 A조'의 강호 독일과 1차전에서 23-22로 승리한 우넷나(서울시청) 선수가 환호하고 있다.

프랑스 파리 그랑팔레에서 열린 '펜싱 여자 사브르 단체전' 시상식에서 서울시청 윤지수(왼쪽), 전하영(왼쪽에서 두 번째) 선수가 건곤감리 모양을 맞춘 귀걸이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지난 도쿄올림픽 은메달에 이어 파리올림픽 '태권도 여자 +67kg'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이다빈(서울시청) 선수가 태극기 세리머니를 펼치고 있다.



파리올림픽 양궁 3관왕의 임시현(한국체육대학교) 선수가 '여자 개인 결승전'에서 과녁을 향해 활을 쏘고 있다.



2024 한강 수상스포츠 체험

무더운 여름을 한강에서

도심 빌딩 숲 사이에서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한강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싶다면? 크루저 요트, 패들보드, 수상 자전거, 카타마란 요트 등 다양한 수상스포츠 종목을 경험할 수 있는 '2024 한강 수상스포츠 체험'이 최근 막을 내렸다. 총 14회 진행된 이번 행사를 통해 1,200여 명의 서울시민이 한강 수상스포츠를 만끽할 수 있었다. 서울특별시체육회는 내년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할 예정이다. 참가를 원한다면 서울특별시체육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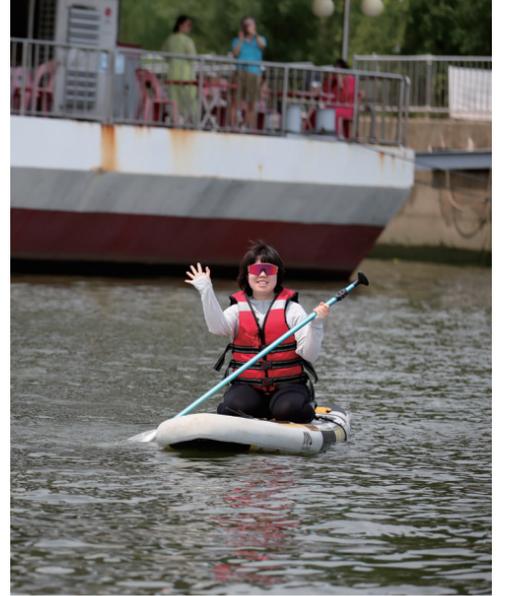
사진. 서승환



스포츠가 있는 풍경



전문강사에게 패들보드 안전교육과 조작방법을 배우고 있는 참가자들



한강망원수상훈련장에서 패들보드를 타고 있는 참가자



양화대교 그늘을 벗 삼아 수상 자전거를 타고 있는 가족 참가자들



한 어린이가 참가자가 한강망원수상훈련장을 출발하는 카타마란 요트에 앉아 기대감을 한껏 표현하고 있다.

한강 수상스포츠 체험은 서울시민들에게 수상스포츠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시행하는 서울특별시체육회의 시민 참여 사업 중 하나다.



서울스포츠 2024 SEP + OCT

paris

2024 파리올림픽을 보내며

지난 8월 파리올림픽이 끝났다.
 한국은 적은 선수단으로도 선전해 종합 8위라는 성적을 거두었다.
 프랑스 파리는 종합대회를 치르는 모범 사례를 보여주기도 했으나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었다. 혁신과 지속가능성을 중요한 테마로
 삼은 2024 파리올림픽의 혁신적 시도들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방안, 그리고 양성평등과 저탄소 지향에 대해 알아보자.
 더불어 올림픽을 즐기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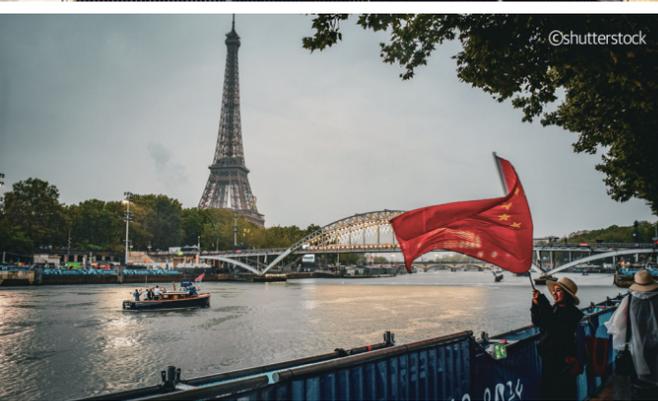
2024

파리 2024: 혁신과 지속가능성

2024 파리올림픽은 혁신과 지속가능성을 중요한 테마로 삼고 있다.

올림픽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파리
2024의 혁신적 시도와 지속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고,
미래를 가능해보자.

글 변진수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혁신을 위한 노력

대중의 큰 관심을 받아온 올림픽은 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대회 개최를 위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비용이 막대하게 증가해왔다. 특히, 올림픽 이후 경기장의 낮은 활용 가능성은 이미 일반 대중에게도 잘 알려진 문제로 자리 잡은 지 오래이다. 이처럼 사회 전반에서 올림픽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에 따라, 2014년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위원장으로 부임한 토마스 바흐는 올림픽 운동의 전반적 혁신을 위해 '올림픽 아젠다 2020'이라는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아젠다 2020에서 제안된 40개의 권고안 중, 권고안 4는 경제, 사회, 환경 전반에 걸친 지속가능성을 증진하기 위해 IOC가 조직위원회와 올림픽 대회 준비 과정에서 협력하고, 대회 이후에는 올림픽을 통해 창출되는 유산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는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였다. 또한, 권고안 12에서는 올림픽 대회 개최에서 비용 절감과 유연성 증대를 추구할 것을 선언하였다. 이외에도 권고안 11에서는 더 많은 여성 선수가 올림픽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을 명시하였다.

바흐 위원장의 연임이 확정된 2021년, IOC는 아젠다 2020을 통해 이뤄낸 성과를 바탕으로 '올림픽 아젠다 2020+5'를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새로운 올림픽 혁신안은 IOC의 디지털화, e스포츠의 수용, 선수 인권 보호 등 다양한 사업과 관련된 15개의 권고안을 포함하고 있다. 그중 권고안 2는 올림픽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올림픽 개최 시 기존 또는 임시 시설물의 사용을 장려하고, 개최 도시 외의 장소에서 경기 주최를 허용하는 내용을 명시하였다.

사실 IOC는 2024 올림픽 유치 과정에서 많은 도시가 개최 비용 부담을 이유로 유치 의사를 철회하는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이에 2017년 7월, IOC는 최종적으로 프랑스 파리와 미국 LA에게 각각 2024년과 2028년 올림픽 개최권을 동시에 수여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IOC는 파리 2024가 올림픽의 부흥과 혁신을 위한 그간의 전략과 노력이 온전히 반영된 대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파리올림픽 마스코트 프리주
©shutterstock



에펠탑 경기장 조감도
©IOC 공식 계정



서울스포츠 2024 SEP + OCT

01

경기장 계획의 혁신

파리 2024는 사후 경기장 활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회 시설의 95%를 기존 또는 임시 시설을 활용해 스포츠 경기를 개최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스포츠 경기를 파리의 랜드마크 곳곳에서 개최하는 혁신적 접근이 눈에 띈다. 올림픽 개최식은 역사상 최초로 경기장이 아닌 파리의 상징인 센 강에서 진행됐다. 과거 규모가 큰 올림픽 주경기장은 대회 이후 낮은 활용도로 골칫거리가 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파리 올림픽은 개최식을 센 강에서 개최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였다. 또한, 많은 스포츠 경기가 에펠탑, 베르사유 궁전 등 파리의 랜드마크에 설치될 임시 시설물에서 개최됐다. 이를 통해, 대회 중 파리 전체를 올림픽 경기를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대회 이후 임시 경기 시설물은 해체하여 사후 관리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02

스포츠 종목의 혁신

파리 2024에서 우리가 보게 될 또 하나의 혁신은 새로운 스포츠 종목의 등장이다. 최근 IOC는 올림픽에 대한 젊은 세대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를 위해 스케이트보드, 서핑, 스포츠 클라이밍, BMX 프리스타일 등 액션 스포츠가 적극 도입되었다. 2020 도쿄올림픽부터 선보인 액션 스포츠는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받았으며, 파리 2024에서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브레이킹(브레이크 댄스)이 올림픽 무대에 처음으로 데뷔했다.

파리 2024에서는 파리 시내 중심부 콩코르드 광장에 임시 구조물로 조성된 어반 파크에서 스케이트보드, BMX 프리스타일, 브레이킹 경기가 진행됐다. 도쿄 올림픽부터 공식 종목으로 지정된 3대3 농구 역시 어반 파크에서 개최됐다. 스포츠 클라이밍은 새롭게 건설되는 영구 시설물인 르 부르제 클라이밍 경기장에서 개최됐으며, 이 경기장은 올림픽 이후 지역사회를 위한 중요한 유산으로 남겨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올림픽 아젠다 2020+5에 따라 IOC는 필요한 경우 올림픽 개최 도시 외의 지역에서 경기 개최를 허용하는 변화를 시도 중에 있다. 이와 관련해, 파리 2024에서는 서핑 경기가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섬나라 타히티 테아후포에서 개최됐다. 이처럼 스포츠 종목의 혁신은 IOC가 추구해 온 지속 가능한 대회 개최 전략과 맞물려 진행되고 있으며, 과거 스포츠로 인식되지 않았던 새로운 종목들의 등장은 더 많은 대중이 올림픽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어반 파크 조감도
©IOC 공식 계정

올림픽 아젠다 2020+5 표지 이미지
©IOC 공식 계정



모두를 위한 마라톤 예상도
©IOC 공식 계정



03

더 포용적인 대회 운영 방식

더욱 혁신적인 올림픽 개최를 위한 파리 2024의 목표는 포용성이라는 키워드와도 연결된다. 이를 위해 일반 대중을 위한 아마추어 마라톤 대회가 지난 8월 10일 토요일 저녁 9시(현지 시각)에 개최됐다. 이 이벤트에 참여한 대중은 올림픽 마라톤 공식 코스를 달렸으며, 이는 역사상 처음으로 올림픽 기간 중 조직위원회에 의해 개최 도시에서 일반 대중이 참여하는 스포츠 경기 이벤트로 기록될 예정이다.

또한, 파리 2024는 역사상 가장 남녀 참여 선수의 비율이 동등한 대회가 되었다. IOC는 파리 올림픽에 참가하는 남녀 선수의 비율을 50:50으로 계획해 왔으며, 결과적으로 전체 선수 중 남성 51%, 여성 49%의 비율이 집계되어 거의 그 목표에 도달했다. IOC는 이러한 시도가 전 세계 여성 스포츠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하나의 혁신적 시도는 파리 2024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위해 동일한 엠블럼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장애인 선수들이 참여하는 패럴림픽과 비장애인 선수가 참여하는 올림픽 간 인식의 경계를 조금 더 허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04

파리 2024는 환경 올림픽: 지속가능성의 증대

기후 위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열린 파리 2024는 환경 올림픽을 목표로 다양한 시도를 했다. 2015 파리 기후협약을 준수하기 위해 탄소발자국을 과거 2012 런던과 2016 리우 올림픽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회 운영과 관련된 식단, 교통, 인프라 등 전반에 걸쳐 노력을 기울였으며, 올림픽 선수촌은 저탄소 목재와 콘크리트 등 친환경 소재를 사용해 건설되었다.

또한, 선수촌 내 에어컨은 설치되지 않았으며, 2020 도쿄 올림픽에서 선보였던 골판지 침대는 내구성을 개선하여 파리 2024에서도 활용했다. 이러한 노력은 경기장 설계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수영 경기가 펼쳐진 신축된 '상트르 아쿠아티크(Le Centre Aquatique)' 경기장의 관중석은 모두 재활용 플라스틱을 사용해 제작되었다.

향후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올림픽으로 거듭나기 위한 발판이 이번 파리 2024를 통해 어떻게 마련되는지 지켜보는 것도 중요한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파리 2024 개막식 예상도
©IOC 공식 계정



파리 2024 올림픽 빌리지 조감도
©IOC 공식 계정

파리 2024, 그리고 올림픽의 미래

파리 2024는 IOC가 수년간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올림픽을 만들기 위해 추진해 온 혁신의 결과물을 확인할 기회가 되었다. 특히 2025년이면 아젠다 2020+5도 마무리될 것이고, IOC는 새로운 혁신을 위한 준비와 로드맵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새롭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과 시도에는 항상 위험이 따르며, 그 과정에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난관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파리 2024가 종료된 이후의 중요한 과제는 이번 대회를 통해 얻은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다가올 올림픽을 더욱 지속 가능한 대회로 만들어가는 노력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파리 2024에서 시도된 혁신적 변화의 성과와 한계를 명확히 평가하고, 더 나은 전략과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파리 이후 개최가 예정된 올림픽은 이탈리아 밀라노-코르티나 2026 동계올림픽, 미국 LA 2028 하계올림픽, 호주 브리즈번 2032 하계올림픽이다. IOC는 올림픽을 개최할 후속 도시의 조직위원회에게 이전 대회에서 축적된 최신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올림픽 대회 지식 관리 프로그램(Olympic Games Knowledge Management(OGKM) Programme)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다가올 대회에서도 IOC와 파리 2024가 추진한 경기장, 스포츠 종목, 포용성, 환경적 지속 가능성 관련 혁신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동계올림픽은 최근 기후 위기 속 기온 상승 문제로 인해 설상 스포츠에 필요한 충분한 양의 눈을 확보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혁신적 변화의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현실이다.

파리 2024를 뒤이어 개최될 올림픽에서는 어떤 새로운 혁신적 시도를 볼 수 있을까? 그리고 과연 올림픽은 수많은 비판을 극복하고 더 나은 지속가능성을 갖춘 이벤트로 거듭나 다시 한 번 인기와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까?

파리 2024를 통해 올림픽의 현재를 확인하고 미래를 가늠해보자.

글을 쓴 변진수는 연세대학교 스포츠응용산업학과 교수로, 다양한 스포츠 거버넌스, 스포츠 조직 변화, 지속가능한 스포츠 이벤트 관리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2024 파리올림픽을 정리하며

파리올림픽이 끝났다. 한국은 적은 선수단으로도 선전했고, 파리는 종합대회의 모범사례를 보여주기도 했으나 그들이 추구했던 '저탄소'와 '양성평등'에 대해서는 고개가 갸웃해진다.

2024 파리올림픽에 대해 정리해봤다.

글: 정다워

예상 밖 선전 팀코리아의 저력

한국은 대회를 앞두고 금메달 5개, 종합 순위 15위를 목표로 설정했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한국 스포츠의 저력은 우려보다 강했다. 사격과 양궁, 펜싱, 태권도, 유도, 배드민턴, 탁구, 수영, 근대5종, 역도, 복싱 등 총 11개 종목에서 메달이 쏟아졌다. 금메달 13개, 은메달 9개, 동메달 10개 등 총 32개의 메달이 나왔다. 가장 많은 메달을 얻은 1988 서울올림픽 33개 기록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도 있는 수준이었다. 역대 최고의 대회였다. 평가도 과하지 않다.

일각에선 예측에 실패한 대한체육회를 비판하기도 하지만, 이 정도의 선전을 예상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한국은

48년 만에 가장 적은 144명의 선수단을 파견했다. 인구 감소에 따른 엘리트 체육의 약화와 정책적 오류 등으로 인해 3년 전 도쿄 대회보다 부진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렸다. 외신의 평가도 다르지 않았다.

파리 현장에서 목격한 한국 선수단 선전의 가장 큰 이유는 개인의 노력과 달라진 자세다. 과거 한국 선수들은 과도한 애국심과 책임감에 시달리며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경기 후 "죄송합니다"를 연신 외치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쉽게 볼 수 있었다. 이제 정서가 달라졌다. 성적에 아쉬움을 느끼거나 가족, 스승 생각에 우는 선수는 있었지만, 나라에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이는 선수는 본 기억이 없다. 21

세기에 태어난 어린, 혹은 젊은 선수들 위주로 태극기를 대하는 태도가 확실히 달라졌다. 사회 분위기 자체가 그렇다. 더 이상 애국, 충성을 강요하지 않는 사회다. 체육계라고 다를 것은 없다. 20대 초중반의 선수들은 이제 나라가 아닌 개인의 영광과 명예를 위해 뛰는 기성세대와 비교하면 부담을 느끼는 수준이 다르다. 그저 "즐긴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대회를 준비했을 뿐이다.

그렇다고 태극기를 아예 외면하는 것은 아니다. 경기장에 걸린 태극기는 선수들을 더 뛰게 하고 힘나게 하는 확실한 원동력이었다. 개인의 욕망과 애국심이 적절하게 융합될 때, 기량은 100%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한 대회였다.

도시 전체를 경기장으로, 저비용 고효율 롤모델을 제시한 파리

파리는 세계적인 관광지다. 마스터카드가 2023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파리는 방문자가 가장 많은 도시 2위였다. 파리는 도시 전체가 랜드마크다. 에펠탑을 비롯해 센강, 앵발리드 등 여러 명소를 보유한 곳이다. 파리올림픽조직위원회는 이를 적극 활용했다. 센강 전체에서 개막식을 열었고, 에펠탑 앞에서는 비치발리볼 경기가 열렸다. 묘지와 예배당, 군사 박물관, 대형 정원, 그리고 알렉상드르 3세 다리 이어지는 앵발리드에는 양궁장을 설치했다. 1900년 세계박람회가 열렸던 그랑 팔레에서는 펜싱, 태권도 경기가 열렸다. 단순히 경기를 넘어 경기장까지 즐기게 만드는 종합콘텐츠로서의 가치를 선보인 셈이다.

파리올림픽이 남긴 최대 가치는 바로 여기에 있다. 불필요한 토목 공사를 하지 않아도 대회를 치를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점이다. 2014 인천아시안게임은 종합대회의 폐해를 제대로 확인한 대회였다. 시설 건설에만 무려 약 1조 5,000억 원을 투입한 인천시에는 지금도 쓰지 않는 경기장이 흉물처럼 남아 있다. 명백한 예산 낭비다. 이미 세계적인 인지도가 확보된 한국 정도의 국가에서 굳이 종합대회를 유치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는 결과다.

파리는 달랐다. 거의 모든 종목 경기장은 가변식으로 구성됐다. 조립식 철골 구조물로 관중석을 만들었을 뿐이다. 대회를 마치면 간단히 해체해 기존 건물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실제 경기장에서 대회가 진행된 것은 축구, 농구, 배드민턴 등 극소수 종목에 불과했다. 저비용 고효율의 전형이었다.

파리 대회는 앞으로 종합대회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제대로 보여준 모범 사례였다. 대규모 토목 공사 없이도 대회를 소화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만큼 올림픽 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올림픽 유치를 추진하는 서울시에서 꼼꼼하게 벤치마킹해야 할 것들이 파리에 있다.

양성평등과 저탄소 발자국 지우기 이면의 공허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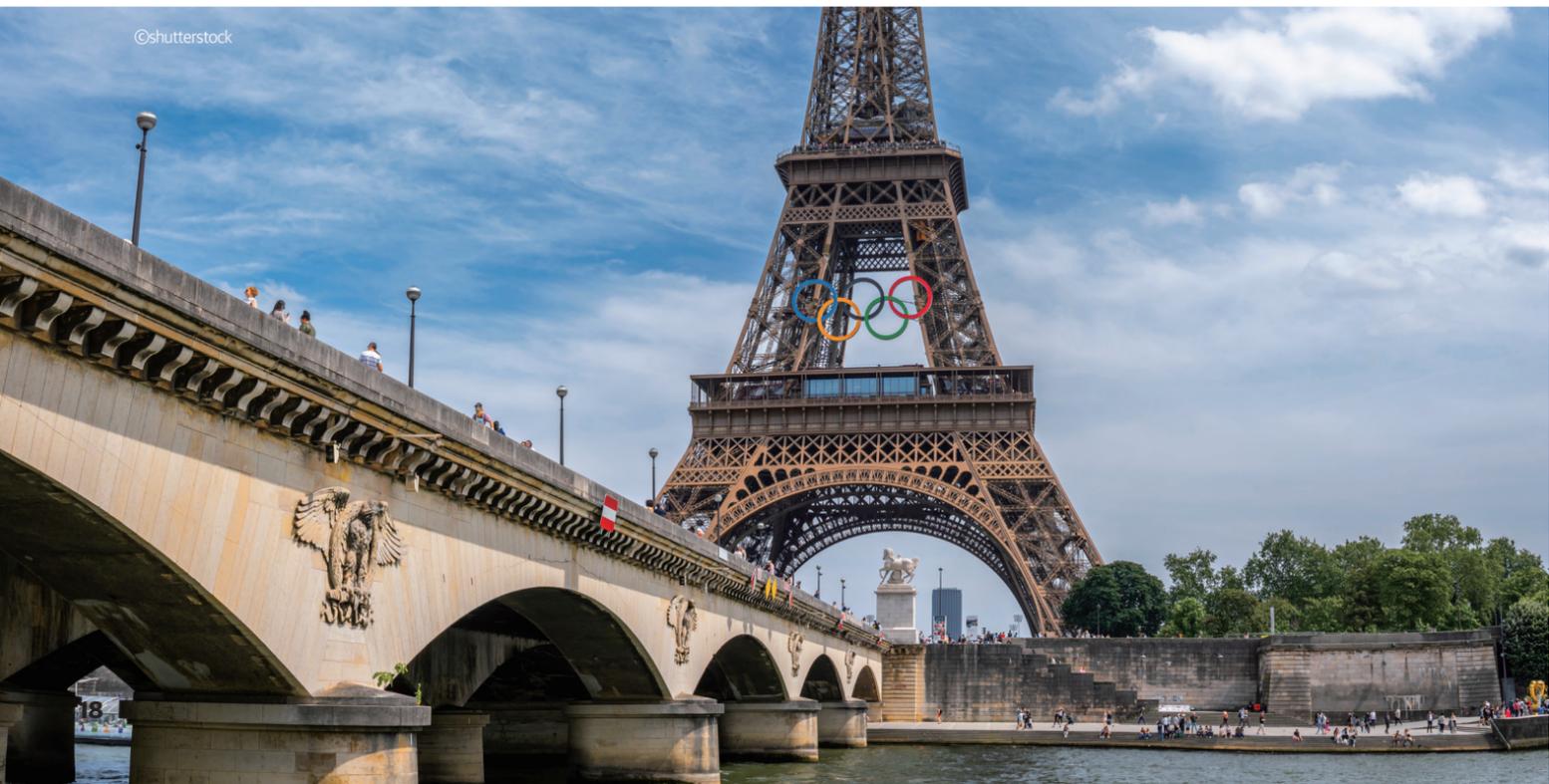
파리올림픽은 역대 최초로 남녀 성비를 맞춘 '양성평등' 대회를 지향했다. 사실 종합대회에서 남녀 차별을 느끼지 않은 지는 오래됐다. 국내 미디어에서도 메달 색깔에 비중을 둘 뿐 성별에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다만 복싱에서는 성별 논란이 문제가 됐다. 대만의 린위팅과 알제리의 이마네 칼리프, 두 명의 금메달리스트가 성별 논란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를 낳았다. 조직위원회는 큰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대회에 참가한 다른 선수들의 반발이 심했던 만큼 다음 대회부터는 더 꼼꼼한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이번 대회 최대 이슈는 저탄소 발자국 지우기 정책이었다. 탄소를 줄이겠다며 선수단 숙소, 버스 에어컨을 끄는 등 극단적 정책으로 인해 비판을 받았다. 몇 년간 대회를 준비한 선수들의 경기력에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논란이 됐다.

현장에서는 조직위원회의 정책에 공허함을 느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탄소를 줄이겠다면서 개막식에 디젤 엔진으로 굴러가는 선박을 100대 가량 띄웠고, 코카콜라 플라스틱 컵 600만 개를 배포하는 등 무의미해 보이는 움직임이었다는 비판이 주를 이룬다. '저탄소가 그 정도로 중요하면 차라리 올림픽을 아예 개최하지 말았어야 한다'라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환경 보호도 중요하지만, 올림픽 본연의 의미는 경기 그 자체에 있다. 선수가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는 것보다 올림픽에서 중요한 가치는 없다. 이번 대회에서는 주객이 전도되는 듯한 느낌을 받아 아쉬움이 남았다.

글을 쓴 정다워는 <스포츠서울> 기자로 2012년 생애 처음으로 쓴 이력서로 축구기자가 됐다. 지금은 다양한 스포츠 분야를 오가며 취재하고 있다



밈이 낳은 새로운 스타

새로운 미디어를 통해 올림픽을 접하는 몇 가지 사례를 보자. 올림픽 기간에는 스타가 탄생하고 이를 통해 올림픽에 관한 관심도 증폭한다. 2024년 프랑스 파리 올림픽에서 가장 핫한 글로벌 스타는 사격의 김예지 선수일 것이다. 그런데 김예지 선수는 금메달이 아니었음에도 주목받았다. 여자 공기 소총 10m에서 은메달 획득에 머물렀는데도 그는 세계적 주목을 받았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조차도 액션 배우 스타일이라고 호평했고, BBC, CNN 등 유수의 언론들이 김예지 선수의 멋진 스타일을 극찬했다. 더구나, 이번 올림픽 경기만이 아니라 세계사격선수권 대회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웠던 지난 영상까지 소환하면서 2,000만 뷰 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했다. 딸아이가 준 코끼리 인형 키링은 물론, 딸을 향한 반전 미소가 더욱 팬덤을 확대했다. 핫한 선수의 모든 것을 찾아내고 즉각 공유하는 이러한 현상은 모두 누리꾼들이 자발적으로 이뤄낸 것이다. 예전에는 방송과 언론이 주도하던 콘텐츠의 유포가 이제는 동시다발적으로 그리고 전 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세계인들과 같이 소비하게 되었다. 이것은 특히, 스마트폰을 통한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자발적으로 올림픽 관련 콘텐츠를 즐겼기 때문에 가능했다. 무엇보다 올림픽 밈(Meme_유행하는 짧은 디지털 콘텐츠로 사람들이 무의식중에 보고 널리 확산시키는 사진이나 영상 등을 포함)을 생성하고 공유하며 확산하는 모습이 일반적인 올림픽 향유 문화가 되었다. 이러한 밈을 통해서 다시 올림픽 참가 선수들의 경기에 이목을 집중시키는 효과를 낳았다.

올림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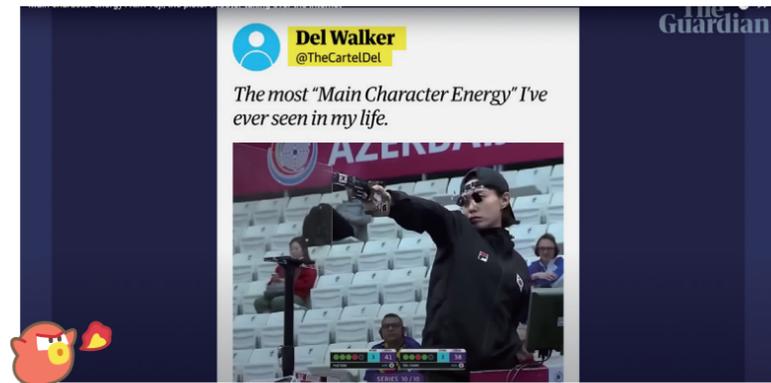
이렇게

올림픽이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 이유는 아마도 올림픽을 즐기는 방식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예컨대 방송 3사의 올림픽 중계방송을 보면서 가족은 물론이고 동네, 마을 사람들이 합성을 지르던 풍경과는 사뭇 달라졌기 때문이다. 그만큼 올림픽 경기를 접하는 풍경이 변화했는데, 이는 새로운 미디어를 통해서 가능해졌다.

글 김현식

즐겼다

이 올림픽 밈의 주인공으로 탁구의 ‘빠약이’ 신유빈 선수를 꼽지 않을 수 없었다. 신유빈 선수의 경우 그의 태도와 인성이 많은 글로벌 팬덤 현상을 낳았다. 비록 자신이 졌음에도 상대 선수를 높이 평가하거나 상대에 대해서 격려하고 응원하는 모습은 많은 감동을 주었다. 자칫 승부에 집착해 자신의 기분에 침잠하기 쉬운 참가 선수들에게 올림픽 정신이 무엇인지, 표정과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어 한국은 물론이고 일본과 중국에서도 많은 호평을 받았다. 심지어 기력을 보충하기 위해 간식을 먹는 장면도 크게 화제가 되었고, 신유빈 선수가 먹었던 납작 복숭아의 경우 비싼 가격에도 불티나게 팔리는 경제효과까지 낳았다. 정작 탁구 경기를 다 챙겨보지 않은 이들까지 이런 올림픽 밈 영상이나 사진을 보면서 신유빈 선수의 경기를 기다리게 되었다. 이러한 밈을 통해서 즐기는 것은 비록 경기뿐이 아니었다. 경기의 좋은 성적을 통해 시청자들도 자부심을 느끼지만, 한류 열풍은 여기에 더한 자긍심을 주었다. 바로 카메라에 잡힌 한글이었다. 미국 체조 스타 시몬 바일스 선수의 유니폼에는 ‘누구든, 모두가’라는 우리말이 써 있었다. 이탈리아 체조선수인 엘리사 이오리오의 등에는 ‘당신 자신을 사랑하세요’라는 한글 문장이 있고, 익숙한 이 문장은 바로 방탄소년단의 앨범 ‘러브 유어셀프 (LOVE YOURSELF)’를 읊던 것이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계 팬들이 엘리사 이오리오를 소셜미디어를 통해 격려하고 응원하게 되었다. 이는 국적과 민족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유튜브 'Guardian Sport' 채널에서 다룬 김예지 선수

뉴미디어 플랫폼의 약진

그렇다면 지상파 방송사에 관한 관심은 어땠을까. 지상파 3사의 시청률은 초반에 생각하지 못했던 메달 레이스가 시작되며 상승했다. 여자 공기권총 10m 결승 오예진 선수의 경기로 KBS2 중계 시청률이 6.4%를 돌파했고, 남자 양궁 단체 결승 경기의 MBC 중계가 10.5%를 넘겼다. 또한, 양궁 남자 개인 결승 김우진 선수의 경기는 MBC 중계에서 18.3%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이런 경기들은 모두 금메달과 관련이 깊었다. 메달과 관련이 없을 시 방송 3사의 시청률은 모두 3% 내외였다. 2020년 도쿄 올림픽 개막식 생중계 합계 시청률(17.2%)의 약 6분의 1 수준이었다. 특히, 파리 올림픽 개막식 시청률은 1%였다. 2012년 런던 올림픽 개막식 합계 시청률 14%에 비해 매우 낮은 숫자였다. 그 대신 온라인의 뉴미디어 플랫폼의 약진은 두드러졌다. 방송사 스포츠 캐스터들의 중계방송을 넘어 아프리카TV, 유튜브 같은 디지털 플랫폼 스포츠 BJ들의 중계가 큰 관심을 받았다. 한 스포츠 BJ에게는 무려 15만 명의 시청자가 몰리기도 했다. 스포츠 BJ의 경우 방송사 스포츠 중계 해설보다 좀 더 솔직하고 허심탄회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소통과 표현에서 매우 풍부하고 다양하기에 정적이고 규격화된 올림픽 중계방송과는 꽤 다른 맛을 제공한다. 또한, 댓글을 통한 상호 작용으로 시청자들은 단순한 시청이 아니라 그 방송에 참여하고 있다는 몰입감을 가지게 된다. OTT 플랫폼도 빼놓을 수 없다. 한 플랫폼의 경우 6월에 비해 52배나 높은 접속자를 기록했다. 안세영 선수의 금메달 결정전은 무려 8.2배의 최대 접속자를 기록했다. 더구나 OTT 플랫폼에서는 지상파 3사가 주목하지 않는 경기까지도 접할 수 있었다. 지상파 3사는 시청률을 의식해 인기종목

에만 주목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점에서 차별화를 할 수 있는 것이 OTT 플랫폼이었던 것. 무엇보다 OTT는 실시간으로도 볼 수 있고, 다시 반복해서도 볼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또한, 선수들의 관련 방송 프로그램도 연계시킬 수 있다. 인기 있는 선수들이 예능에 출연했던 영상들은 대부분 시청률이 높았다. 펜싱 오상욱 선수가 MBC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한 영상은 시청자 수와 시청 시간이 모두 8배 상승했다. 남자 양궁 김우진·김제덕 선수의 SBS ‘집사부일체’ 시청 지표도 2배 이상, 탁구 신유빈 선수의 어린 시절이 담긴 SBS ‘스타킹’과 MBC ‘무한도전’도 1.5배 시청률이 높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렇다고 해서 지상파 3사가 유튜브 채널 같은 뉴미디어 매체를 완전히 도외시한 것은 아니다. 유튜브 중계를 통해서 좋은 반응을 끌어낸 것도 사실이다. 현장에서 찍은 직캠을 공개한다든지 중계방송 이면의 영상을 공개하며 나름의 다양한 콘텐츠를 공유했다. 포털 사이트 등에서도 선수들의 챌린지 영상을 올리면서 다양하게 올림픽을 즐길 수 있게 했다. 이렇게 올림픽을 즐기는 방식은 다양화되었고 기존 매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전과 달리 분산되어 잘 보이지 않아도 즐기려는 이들에게 더욱 다양한 방식이 열릴한 레이스를 펼친 것만은 사실이다. 새로운 성과와 시도는 다음 LA 올림픽에서 즐거움의 진화로 더 이어질 것이다.

글을 쓴 김현식은 대중문화평론가, 문화콘텐츠학 박사로 문화 현상 연구를 통해 공공 정책의 대안을 모색해오고 있다. 2023년에는 <SBS 열린 TV 시청자 세상> 티비 뒤집기의 진행을 맡기도 했다.

몽골에서 온 엠마 씨

“농구를 하며 삶의 태도를 배웠어요”

연세대학교에서 건설환경공학을 배우고 있는 엠마 씨를 만났다. 엠마 씨는 농구를 통해 스트레스도 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배우고 있다며 농구는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킨 계기였다고 말한다.

글. 김엘진 사진. 황지현 영상. 신현균

믿고 즐기는 스포츠

“농구의 매력은 아무리 말해도 부족한 것 같아요.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좋고, 몸을 움직이며 활력도 되찾을 수 있어요.”



QR코드를 스캔하면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7월의 비가 내리던 수요일 저녁, 연세대학교 스포츠 과 학관 구기장에서 몽골에서 온 엠마(Erdenekhoo, Enkhmaa Emma:엘덴후 엔흐마 엠마)씨와 만났다. 이날은 그가 속해 있는 연세대 여자 농구팀 'Miss-B'의 연습 날이었다. 엠마 씨는 환칠한 키와 시원하게 웃는 얼굴이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소녀 같은 인상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몽골과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연세대 4학년 유학생 엠마라고 합니다. 건설환경공학 전공으로 경영학을 부전공하고 있고, 한국에는 2022년에 들어왔어요.”

농구에 매료되다

엠마 씨는 태어나서 10살까지 미국에서 살았다. 활동적인 부모님을 따라 탁구, 수영 등 다양한 스포츠를 시도해봤으나 엠마 씨를 가장 사로잡은 스포츠는 농구였다.

“가족과 NBA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팀의 경기를 본 적이 있어요. 맨 뒷자리에 앉아있었는데도 선수들의 화려하고 멋진 플레이가 정말 감동적이었고, 너무 재밌었어요. 그날 농구에 빠지게 됐던 것 같아요.”

이후 몽골로 돌아가 중학교에 진학한 엠마는 본격적으로 농구를 시작했고, 지금까지 언제나 농구와 함께 했다. 농구는 격렬한 스포츠이기에 체력과 근력을 키워 꾸준히 공을 던질 수 있도록 생활 습관도 바꾸었다. 더 건강하게 식단을 짜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기 위해 노력했다.

“러닝머신을 타는 등 유산소 운동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농구는 발목, 무릎, 손목 등 관절에 부담이 가는 운동이기 때문에 부상을 대비해 스트레칭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운동 전후에도 냉온찜질을 자주 해요.”

나를 성장시킨 스포츠

엠마 씨는 현재 연세대의 유일무이한 여자농구 동아리이자 대학부 최고의 농구동아리라고 자부하는 'Miss-B'에 속해있다.

“여자 농구팀이라 팀명이 Miss-B입니다. 우리 팀은 매주 수, 금요일 저녁에 훈련을 하고 있어요. 미쓰비의 모든 팀원은 다양한 전공과 배경을 지니고 있지만, 모두 농구에 대한 열정만은 똑같이 넘쳐납니다. 특히 전예슬 감독님과 김연주 코치님께 농구에 대해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Miss-B는 여러 농구 대회에도 참가하며 실력을 기르고 있다. 특히 8월에 열리는 'KUSF(한국대학교스포츠협의회)'의 경기와 '이화여대배' 대회에도 출전할 예정이다(7월 기준).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몽골로 돌아가는 일정도 조절했다고.

“대회에 출전할 때는 항상 모든 팀원이 다치지 않고,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 수 있길 바라게 돼요. 물론 좋은 성적도 낼 수 있으면 더할 나위가 없죠!”

농구는 여성이 시작하기는 다소 어렵게 느껴지는 스포츠다. 키가 커야지만 가능할 것이라는 선입견도 있으며, 몸싸움도 잦고, 부상을 당하기도 쉽다. 그렇지만 농구는 팀 스포츠라는



특징이 있다. 개인의 기술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과 협력하고 소통하는 능력이 빛을 발하는 종목이다.

“선수들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빠른 속도로 공수 전환이 이뤄져 보는 사람도 지루할 틈이 없잖아요. 그리고 다양한 포지션과 그에 맞는 기술, 팀 간의 전략적 플레이가 조화를 이뤄야 이길 수 있어요.”

엠마 씨는 입에 침이 마를 정도로 농구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쏟아냈다.

“농구의 매력은 아무리 말해도 부족한 것 같아요.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좋고, 몸을 움직이며 활력도 되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작은 목표를 이루고 기술을 향상시키며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이는 자신감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농구를 통해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함께 운동하는 과정에서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으며, 이런 사회적 네트워크를 넓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무엇보다 슛이 성공할 때의 쾌감, 팀워크로 득점을 만들어낼 때의 기쁨은 농구만의 매력이지요.”

엠마 씨는 농구 덕에 인내심과 리더십, 동료애 등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으며, 농구는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 삶의 태도를 가르쳐주고, 성장시킨 자신의 선생님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엠마 씨와 함께 서울 곳곳을 누벼보자!



익선동

“친구들과 함께, 때로는 혼자 맛집이나 카페를 찾으며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서울에 예쁜 카페들이 많아서 시간 날 때마다 검색을 해서 방문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 곳을 다녀보았는데 카페는 역시 익선동 카페가 좋은 것 같아요.”



@unsplash

연희동

“개인적으로 연희동을 서울에서 제일 좋아해요. 학교 부근이기도 하고, 연희동은 연희동만의 매력과 감성을 지녔다고 생각합니다. 조용하고, 작은 편집숍과 맛집도 많아서 산책하며 구경하기에 너무 좋습니다.”



@shutterstock

그릭데이

“훈련이 늦게 끝나면 간단하게 먹는 편입니다. 그중 최근에는 ‘그릭데이’라고 그릭 요거트볼을 파는 가게를 자주 찾아요. 그릭 요거트에 그래놀라, 과일 꿀이 함께 들어있어 부담스럽지는 않지만 든든하게 먹기에 딱 좋습니다.”



@그릭데이

북한산

“가족들이 가끔 서울로 놀러 오는데, 졸업하기 전에는 꼭 북한산에 같이 가고 싶어요. 부모님이 등산을 좋아하시는데 다음번 한국 방문 때에는 함께 풍경이 아름다운 산을 오르려고요. 산에서 내려오면 맛있는 한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싶습니다.”



@unsplash

한강공원

“사실 학교 체육관 말고 다른 곳에서 농구를 많이 해본 경험이 거의 없는데, 이따금 한강공원에서 농구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거든요. 너무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저도 한번쯤은 우리 팀원들과 함께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unsplash



온 가족이 함께 하는 안보체험 ‘2024 서바이벌 프로그램’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이색적인 체험을 원한다면 서울특별시체육회의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참여해보는 것은 어떨까? 이 프로그램은 매년 진행되니 올해 놓쳤다면 내년에 다시 도전해도 좋다.

글. 김엘진 사진. 서울특별시체육회



서울스포즈 2024 SEP + OCT



서울특별시체육회의 이색 체험 프로그램

서울특별시체육회가 서울시민 가족 약 580명을 대상으로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3차례에 걸쳐 '2024 서바이벌 프로그램(이하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서바이벌 프로그램은 서울시민의 여가활동 지원을 위하여 2016년 서울시와 수도방위사령부 간에 맺었던 업무협약을 통해 진행되는 사업이다. 참가신청은 서울시체육회 홈페이지(www.seoulsports.or.kr)에서 받고 무작위 추첨을 통해 회차별 160명씩 선정되며, 참가비는 1인당 1만 원이다. 다자녀가정(2자녀 이상)에게는 우선 선발권이 있으며, 스포츠취약계층(저소득, 다문화가정, 고립은둔청년)은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2024년 서바이벌 프로그램에는 3:1의 경쟁률을 뚫고 선정된 서울시민 가족들이 참가했다. '최첨단 과학화 훈련장에서 온 가족이 함께하는 안보체험'이라는 부제가 알려주듯 서바이벌 프로그램은 과학화 훈련장을 활용해 안전하고 실감나는 이색 여가스포츠 체험을 제공한다. 특히 3회 체험 중 1회는 병영캠프를 도입해 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고.

서바이벌 프로그램은 경기도 남양주시의 금곡 과학화예비군 훈련장에서 진행됐으며, 이 프로그램을 위해 마일즈훈련장, VR영상모의사격훈련장, 비룡관, 취사장 등을 개방했다.

3가지 프로그램

서바이벌 프로그램은 마일즈 서바이벌, VR 영상모의사격, 응급처치 교육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① 마일즈 서바이벌

영화 세트장처럼 조성된 시가지 훈련장에서 진행되는 마일즈 서바이벌에서는 고감도 센서 감지기를 달고 교전 상황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참고로 마일즈(MILES; Multiple Intergrated Laser Engagemant System)는 레이저를 쏘아 상대가 착용한 감지기에 맞으면 사망·중상·경상 등 결과가 나와 살상 여부를 판별할 수 있도록 고안된 첨단 장비다.

② VR 영상모의사격

가상화면 속 실제 도심 환경에서 진동을 느낄 수 있는 VR 영상모의사격은 도시나 지하철역 내부 등을 실제처럼 묘사한 대형 스크린에서 가상의 적과 대결을 펼치는 방식이다.

③ 응급처치 교육

갑작스러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응급처치 교육(심폐소생술, AED사용법 등)도 참가자 전원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참가자의 98%가 “만족”

그 외에도 서울특별시 체육회는 ▲스마트폰 사진 인화 서비스 ▲페이스 페인팅 이벤트 ▲서울 푸드트럭 운영 등을 통해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실제 행사 종료 후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 가족의 대부분이 만족한다고 답했다. 1차 서바이벌 프로그램의 운영 만족도 조사에서 91%가 매우 만족, 9%가 만족한다고 답변했으며 2차 조사에서는 85%가 매우 만족, 11%가 만족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가장 좋았던 프로그램을 묻는 질문에는 1차 조사 답변자의 79%, 2차 조사 답변자의 91%가 마일즈 서바이벌이라고 답변해 마일즈 서바이벌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모든 체험을 마친 참가자들의 소감도 긍정적이었다. 한 참가자는 “아들이 총 쏘는 오락을 많이 하기에 진짜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군대 예비군 훈련장이고, 교육도 내용이 충실해서 참 좋았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을 기획해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후기를 남겼다. 또 다른 참가자는 “심폐소생술을 처음 배웠어요. 어떠한 경우에 써야 하는지 잘 배워가고, 남자아이러 군대에 가야하는데, 군대의 첫 인상을 가족과 보내며 긍정적인 곳으로 생각하게 됐어요. 아이가 꼭 이 부대로 오고 싶다고 희망합니다”라고 전했다. 그 외에도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예비군 훈련 프로그램을 시민들도 체험함으로써, 국가안보와 보훈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서울과의 접근성 좋음, 가격대비 매우 만족. 좋은 프로그램”, “모든 게 다 좋은 완벽한 프로그램” 등의 칭찬이 대부분이었다.



개선할 점에는 “좀 더 체험 횟수를 늘려주세요”, “마일즈 서바이벌 시간이 좀 더 길었으면 좋겠어요”, “PX를 이용하고 싶어요” 등 체험을 더 길게 즐기고 싶다는 이야기가 위주로 나왔다.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대해 강대선 서울특별시체육회 회장은 “서울시민이 쉽게 접할 수 없는 최첨단 과학화 예비군훈련장에서 이색적인 여가스포츠를 맘껏 즐기길 바라며, 앞으로도 시민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s k a t i n g

지난 7월,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뚝뚝 떨어지던 어느 날 서울시민들과 김다민 피겨 크리에이터의 특별한 만남이 있었다. 한여름 얼음 위를 자유롭게 미끄러지는 짜릿함을 선사하는 스포츠, 스케이팅을 위함이다.

글 김엘진 사진 황지현 영상 신현균



QR코드를 스캔하면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터 김다민 스케이팅과 함께! 넘어져도 자기 힘으로 일어선다면 그게 실력

가족 스케이팅 교실에 모이다

지난 7월 20일 서울시 목동 아이스링크장 앞에는 스케이팅을 배우기 위해 서울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모였다. 서울특별시체육회가 2016년부터 매년 운영하고 있는 '가족 스케이팅 교실'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이날은 '2024 가족 스케이팅 교실'의 3번째 강습이 있는 날. 무더운 날씨에도 서울시민 가족들의 표정은 기대감으로 들떠있었다. 참가자들은 총 9개조로 나뉘었고, 이 중 9조는 유찬이(9세), 지유(7세)와 엄마·아빠, 예준이(9세)와 엄마, 하준이(6세)와 아빠, 시현이(9세)와 엄마·아빠로 이뤄졌다.

“오늘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당선된 것으로 아는데, 정말 기대돼요.” 예준이 엄마의 말에 예준이도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고 안전모와 스케이팅화를 착용하고 있을 때 오늘의 선생님, 김다민 피겨 크리에이터가 환하게 미소 지으며 등장했다. 선생님은 아이들이 스케이팅화를 잘 신었는지 확인하며 가족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브 피겨 채널 ‘찬란하다나’를 운영하

고 있는 김다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19살까지 피겨스케이팅 선수로 활동했고 지금은 피겨도 가르치고 있고, 8월에는 ‘뮤지컬 아이스쇼 <G-SHOW : THE LUNA>’에도 출연해요. 오늘 함께 좋은 시간 만들어요!”

넘어져도 오뎅이처럼

가족들은 난간을 잡은 채 매끄럽고 차가운 빙판 위로 차례차례 올라섰다. 후텁지근한 날씨에 비까지 오락가락 했지만 아이스링크장은 상쾌하고 차가운 공기로 더위에 지친 사람들을 맞이했다. 이후 선생님의 리드에 따라 간단한 체조로 몸을 풀 가족들은 선생님의 손을 잡고 조금씩 걷기 시작했다. “땅에서 걷는 것처럼 뒤꿈치부터 내려놓으면 넘어질 수 있어요. 위에서



오늘의 스케이팅 선생님
‘김다민 피겨 크리에이터’

피겨 채널 ‘찬란하다나’의 ‘다나’, 김다민 크리에이터는 19살까지 피겨스케이팅 선수로 활동하다가 현재는 유튜브 크리에이터이자 피겨 강사로도 일하며 시민들에게 자신의 노하우를 나누고 있다. 처음에는 피겨에 대한 욕구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지만 갈수록 피겨 대중화에 이바지하고 싶었다는 그는 “이렇게 시민들과 스케이팅 강습을 할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쁘다”라며, “참여하시는 가족 분들이 모두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그리고 스케이팅의 매력을 꼭 알아 가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내리찍는 것처럼 11자로 걸어주세요.”
모두가 자신의 발로 미끄러운 얼음 위에 서있는 것에 성공하자, 이번엔 넘어질 차례였다. “넘어지지 않을 순 없어요. 넘어진 다음 다시 일어나는 법을 배우셔야 해요. 엉덩이부터 옆으로 넘어지고, 손으로 바닥을 밀며 일어나요.”
망설이던 어린이들과 어른들도 결국 차례차례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기 시작했다. 선생님이 그들 사이를 부드럽게 미끄러져 다니며 격려했다. “괜찮아요. 넘어졌다가 스스로 일어날 줄 알기만 하면 충분히 잘 탄다고 할 수 있어요.”
선생님의 이야기에 처음엔 잡아달라고 손을 내밀던 아이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바닥을 짚고 몸을 일으켰다. 마지막으로 일어난 막내 하준이가 한 손을 짹 펴며 말했다. “저는 오늘 5번 넘어졌어요.”
넘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낸 이들은 손으로 무릎을 잡고 조심스럽게 걸음마를 한 뒤, 드디어 팔을 벌린 채 앞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세 줄로 나란히 서서 차례차례 선을 그은 곳까지 갈 거예요. 한 다리를 뒤로 밀었다가 다시 11자로 다리를 모으고, 다시 반대쪽 다리를 밀었다가, 11자로 만드는 거예요.”



요. 어려우면 걷는 느낌으로 가면서 살짝 밀어도 돼요.”
시현 엄마 윤미 씨의 숨겨둔 실력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윤미 씨는 망설이지 않고 부드럽게 전진했다. 엄마에게 자극을 받았는지 시현이도 빠르게 엄마를 따라갔다. 남편이 자랑스럽게 엄지손가락을 내밀었다. “아내의 숨겨진 재능을 발견했네요!”
선생님은 모든 이들의 상태를 꼼꼼히 살피며 움직이다가 찡그리고 있는 지유를 발견했다. 지유의 장갑이 잘 끼이지 않는다는 이야길 들은 선생님은 자신의 장갑을 벗어 지유에게 끼워주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계속해서 넘어지던 지유가 결국 눈물을 보였다.
지유 엄마 순영 씨가 설명했다. “뜻대로 안 되니까 그래요. 잘하고 싶은 마음은 큰데 자기 맘대로 안 되니까.” 그 말처럼 지유는 나가서 좀 쉬라는 권유도 단호하게 뿌리치고는 계속해서 넘어지고, 다시 오뎅이처럼 일어섰다. 오빠 유찬이도 마찬가지로였다. 유찬이는 결국 입고 온 패딩 점퍼까지 벗어던지고는 땀을 줄줄 흘리면서 몇 번이나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섰다.
선생님이 넘어진 아이들을 하나하나 토닥이며 격려했다. “진짜 잘 타고 있는 거야. 지금 너희 혼자 일어났잖아. 그 다음에

f i l e n c e r



도 다시 용기내서 탈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잘 타는 거야.” 막 몸을 일으킨 시현이가 찡긋 웃었다. “처음에는 넘어지는 게 무서웠는데 막상 타다보니까 너무 재미있어요.”
모든 아이들이 이제 열 손가락으로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넘어진 후, 이들에게 짧은 휴식 시간이 주어졌다.

한 여름에도 시원하게

다시 시작된 강습 시간, 이번에는 ‘항아리 모양 그리기’ 순서였다. “양쪽 발로 항아리 모양을 그리는 거예요. 처음에 발을 V자 모양으로 만들었다가, 무릎을 살짝 눌러주면서 A자 모양으로 바꾸면 돼요. A자로 갈 때는 몸이 일른 앞으로 따라가야 해요. 열 번 걷고, 항아리 1개를 만들어 봅시다.”
선생님의 설명에 모두가 발끝에 모든 감각을 집중한다. 또 여기저기서 넘어지는 아이들이 보였지만, 곧잘 따라하는 아이들도 생겼다. 선생님이 그러던 한 바퀴를 돈 다음에는 걷기 5번에 항아리 만들기 1번으로 바뀌었다. 드디어 유찬이가 성공했다! 하준이는 잠시 쉬기로 하고 밖으로 나갔지만 10분도 채 넘기지 않고 빙판 위로 돌아왔다.
“다음에는 밀면서 가볼까요? 길게 밀면서 등글게 돌아서고, 항아리를 만들면서 돌아올게요.”
가족들의 실력이 쑥쑥 나는 것이 실시간으로 보인다. 선생님이 함박웃음을 지으며 박수를 쳤다. “이렇게 잘 하시다니, 진도를 더 나가도 되겠어요. 이번에는 뒤로 걸어볼까요?”

어느새 수업이 끝났다. 선생님은 9조 가족들을 위해 준비해온 목걸이와 마스크를 나눠주고 소감을 전했다.
“의외로 스케이트를 좀 멀게 느끼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지만 계절 상관없이 시원하게 즐길 수 있고, 전신 운동이라 건강에도 너무 좋으니까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들 생각보다 너무 잘 하셔서 더 즐거웠어요.”
막내 하준이는 “스케이트를 처음 타봤는데 힘들었지만 너무 재밌었어요”라고 자신 있게 말했다. 아빠도 “토요일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나오기 힘들었는데, 막상 이렇게 아들하고 같이 하니 좋은 추억이 생긴 것 같고, 아들도 또 오고 싶다고 해서 뿌듯합니다”라고 전했다.
예준 엄마는 “기대보다 더 좋은 시간이었어요. 앞으로도 이런 체험이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다음을 기약했다.
넘어진 지분으로 따지면 1위를 기록한 지유와 유찬이 가족도 소감을 전했다.
“이렇게 더운 한여름에 스포츠를 시원하게 즐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특별한 경험이었어요”라는 엄마의 말에 아빠도 동의한다. “이런 날씨에 집에서 쉬기보다 가족과 스케이트를 타니 정말 행복합니다.”
지유는 통통 부은 눈으로 방긋 웃었다. “처음에는 자꾸 넘어져서 힘들었는데, 용기를 내서 해보니까 자꾸 용기가 더 생겨서 나중엔 잘할 수 있었어요.” 유찬이도 고개를 끄덕였다. “여름에 시원한 곳에 있으니까 기분도 좋고 잘 탈 수 있게 돼서 좋아요! 또 하고 싶어요.”



서울시청 복싱팀과 만난
대한권투체육관 시민 복서들

주먹을 맞대어



두 명의 선수가 주먹을 치고받으며, 끝까지 서 있는 사람이 이기는 가장 원초적인 스포츠 '복싱'. 강함의 척도를 재는 이 스포츠는 지켜보기만 해도 서로 잡아 먹을듯한 눈빛과 분위기에 압도당한다. 서울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남자 복싱팀(이하 서울시청 복싱팀) 선수들과 링 위에서의 사냥법을 배울 대한권투체육관 시민 복서들이 만났다.

글 김가현 사진 황지현

나 누는 대화

울러 퍼지는 복싱의 소리

서울시청 복싱팀과 시민 복서들의 만남의 장이 될 '대한권투체육관'. 대한권투체육관은 2005년에 개장해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한 유서 깊은 곳이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몸을 긴장하게 만드는 '팡팡' 소리가 들려온다. 그렇다, 무언가를 세게 때리는 소리다. 줄넘기를 하고, 샌드백을 때리며 몸을 풀고 있는 대한권투체육관 시민 복서들과 벌써 이들을 매의 눈으로 살피고 있는 서울시청 복싱팀 선수들. 그들이 치는 샌드백, 스텝을 밟는 바닥, 끼고 있는 글러브, 험난한 경기가 펼쳐질 링에서 이곳을 거쳐 간 수많은 복서의 영혼이 느껴진다.

이날 대한권투체육관에는 평소 점점 하나 없지만, 오직 복싱으로 통하는 사람들이 모였다. 하고 후 복싱을 위해 땀을 흘리며 뛰어오는 초등학교 4학년 송재현 군부터 중국에서 넘어와 취미로 복싱하기에는 아까운 실력을 가진 왕효남 씨까지 다양한 사람들이다.

이 중 가장 나이가 많은 7년 차 50대 복서 박영 씨는 복싱을 시작하게 된 그 순간에 대해 이야기했다. “원래도 산을 오르거나 할 때 다른 사람들에 비해 체력이 부족한 편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계단을 오르는 데 숨이 턱턱 막히더라고요. ‘아, 나 체력 부족이구나’ 싶어서 체력 증진을 목표로 동경하던 복싱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교사가 되기 위해 임용고시를 준비 중인 정연주 씨는 평소 격투경기에 관심이 많았다고 한다. “복싱을 하기 전에 무에 타이

랑 주짓수를 해봤어요. 무에 타이는 발을 많이 써야 했는데 저는 손으로 때리는 걸 더 좋아해요. 또 주짓수는 유도같이 엎어지는 운동이다 보니 시작할 때부터 상대가 필요해요. 제가 낮을 가리는 편이라 이런 점이 진입장벽이 높았고, 복싱은 처음부터 샌드백을 때리며 배울 수 있어서 좋았어요”라며 세 운동의 차이점을 언급했다. 정연주 씨는 이어 “아프거나 쉬고 싶을 때 1-2주 정도 쉬면 복싱이 머릿속에서 맴돌더라고요. 결국 그 다음 주에 5번 가기도 하고, 지금은 주에 3-4번씩 꼭 하고 있어요”라며 이제 복싱이 삶의 루틴이 됐다고 말했다.

시작된 링 위에서의 사냥

“너희들, 이제 봉대하고 글러브 꺼라!”

대한권투체육관 시민 복서들이 워밍업(Warming-up_몸을 풀기 위해 하는 가벼운 운동)을 마치자, 서울시청 복싱팀 박정필 감독이 소리쳤다. 기다렸다는 듯 서울시청 복싱팀 선수들은 복싱화의 끈을 질끈 묶고, 손에 봉대를 감기 시작한다. 글러브까지 낀 서울시청 복싱팀 선수들을 보고 굳어버린 대한권투체육관 시민 복서들. 그럴만한 것이 앞으로 함께 주먹을 맞출 서울시청 복싱팀은 1988년에 창단해 2012 런던 올림픽 은메달리스트이자 현 2024 파리 올림픽 코치인 한순철 선수 등 다수의 국가대표를 배출한 막강한 팀이기 때문이다.



“무섭다고 피하면 오히려 상대는 다가가서 파고들어요. 무섭다면 차라리 먼저 다가가서 공격해야 해요.”

살짝 무거운 공기가 맴도는 가운데, 적막을 깨는 박영 씨의 목소리. “아니, 선수님들은 어떻게 그렇게 안 쫓고 잘해요? 나는 맞기 무서워서 상대한테 못 다가가고 피하기만 하게 되는데.” 사뭇 진지한 박영 씨의 표정에 모두 웃고 만다. 서울시청 복싱팀 김두래 선수는 “무섭다고 피하면 오히려 상대는 다가가서 파고들어요. 무섭다면 차라리 먼저 다가가서 공격해야 해요”라며 조언을 해준다. 이 둘을 시작으로 대한권투체육관 시민 복서들이 하나둘 평소 어려웠던 동작 등 복싱에 대한 고민을 토로한다.

하지만 복싱은 입이 아닌 주먹으로 말한다고 했던가. 대화를 주고받던 선수들과 시민 복서들은 서서히 자세를 취하며 주먹을 올린다. 잘 안되던 동작의 올바른 예를 선수들이 몸소 선보이자, 시민 복서들은 명쾌한 답을 얻은 듯 눈이 멍그래진다. 이윽고 선수들이 미트(Mitt 손에 끼고 타격을 받아내는 용품)를 끼고 시민 복서들의 훈련을 봐 준다.

링 위에도 올라가 본격적으로 스파링을 한다. 복싱은 아마추어와 프로가 잘못 맞붙었다가는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시민 복서들은 마우스피스(Mouthpiece_선수의 입안을 보호하는 보호구)와 헤드기어(Headgear_선수의 얼굴·귀 등을 위해 머리에 쓰는 보호구)까지 단단히 착용한다. 박영 씨와 홍성민 선수, 정연주 씨와 김두래 선수, 왕효남 씨와 오재욱 선수가 짝을 이뤄 번갈아 링 위에 올라간다.

박영 씨와 정연주 씨가 링 위에 올라가 선수들에게 주먹을 휘두를 때는 주변에서 “더 세게!”, “눈 감지 말고!”, “몸을 더 흔들어!”, “머리! 머리! 머리를 노려!” 등 포효에 가까운 말들이 쏟아





졌다. 그런데 딱 한 경기에서만 조용했다. 바로 왕효남 씨와 오재욱 선수의 스파링이었다. 대한권투체육관의 에이스인 왕효남 씨는 프로 못지않은 실력을 가져, 모두의 입을 떡 벌어지게 만들었다. 왕효남 씨는 오재욱 선수의 왼쪽 옆구리, 오른쪽 갈비뼈, 머리에 매섭게 펀치를 날려 오재욱 선수의 가드를 내려가게끔 했다. 그러자 주변에서 다시 소리치기 시작했다. “뛰어나, 가드 올려야지!”, “가드! 가드!” 모두 왕효남 씨에게 하는 것이 아닌, 오재욱 선수에게 하는 말들이었다. 나지막이 박정필 감독이 말했다. “저분은 거의 프로급이다.”

서로 닳아있는 열정의 눈매

시민 복서들과 선수들이 스파링을 하는 동안 송재현 군은 체급 차이로 인해 링 위에 올라가진 못하고 미트 훈련을 했다. 송재현 군이 자신도 다른 사람들처럼 하고 싶은지 부러운 눈빛으로 주변을 힐끗힐끗 보던 중 다들 스파링을 마치고 링에서 내려왔다. 복서들의 입 꼬리가 한껏 올라가 있었다. 만족의 미소였다.

홍성민 선수는 웃음꽃을 피우며 말했다. “저는 ‘잘 알려드려야겠다’라는 마음가짐 하나로 왔습니다. 그래서 배우러 오시는 분들도 열정이 있으시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봤습니다. 복싱에 진심인 그 열정의 눈빛을 봤습니다.” 최주현 선수는 미트를 통해서 스텝과 연타 연습을 도와줬고, 시민 복서들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게 가르쳤다. “복싱하는 그 시간만큼은 누구보다 열정과 끈기가 대단했고, 이분들이 복싱을 사랑한다는

것을 몸소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더 복싱을 사랑해주신다면 실력도 더 발전하고 좋은 기회가 있을 거라 믿습니다. 생활 체육 대회나 신인대회를 통해 좋은 경험도 하셨으면 합니다.”

정연주 씨는 홍성민 선수와 겨뤘던 소감을 말했다. “제가 특히 얼굴을 많이 맞는데, ‘몸을 많이 흔들어야 한다’고 조언해주시면서 자세를 하나하나 봐주시더라고요. 이번에 들은 조언을 다음에 꼭 써보고 싶어요.” 박영 씨는 “확실히 선수는 다르더라고요. 저도 몰랐던 저의 단점들을 짚아주셔서 얘기해주셨어요. 예를 들면 시합할수록 제 가드가 점점 내려간다고 하더라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단점들을 보충해서 연습하려고요”라며 선수들에게 들은 조언을 공유했다.



나와의 싸움, 복싱

복싱은 체급에 따라 시험하므로 늘 선수들에게 ‘체중 조절’이라는 사명이 따라온다. 선수들에게 체중 조절을 하며 힘든 적은 없었는지 묻자, 진절머리가 난 듯 고개를 저으며 여러 일화를 얘기했다. 체중 조절을 위해 신 레몬 맛 껌을 4-5시간 동안 씹으며 침을 뱉어 0.9kg을 뺀 이야기부터, 한여름 새벽 욕조에 뜨거운 물을 채운 채 패딩을 입고 앉아 땀을 뺀 이야기까지 다양한 일화를 들을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들을 이렇게까지 노력하게 만든 복싱의 매력은 무엇일까?

“처음엔 친구 따라서 시작했다가, 친구는 그만두고 저만 지금 까지 15년 동안 했습니다. 저는 아웃복서(Out Boxer_상대와의 거리를 유지하며 싸우는 복서)로 스텝을 밟으면서 피하고 때리는 스타일입니다. 상대의 주먹을 피하고, 저만의 기술로 공격하면서 포인트를 얻습니다. 여기서 오는 쾌감과 승리라는 기쁨이 절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습니다.” 복싱에 매료되어 끝까지 노력한 것이 최주현 선수에게 2023 국가대표 선발전 1위라는 쾌거로 돌아왔다.

복싱이라는 종목은 자신과 상대, 일대일로 치르는 경기다. 하지만 하나의 경기를 위해 5시간 동안 침을 뱉고, 한여름에 패딩을 입고 땀을 뺀 등 자신과의 싸움을 펼쳐야 한다. 언제 생겼는지도 모를 몸의 상처들이 그간의 노력을 말해준다. 노력 후에 링 위에 올라가 나와의 싸움을 펼치는 것이 복싱이다. 갈고 닦은 주먹으로 과거의 나에게 펀치를 날려 함께에 도전하는 복서들을 응원한다.



때때로 옛것은 잊어서는 안 될 소중한 가치를 되살려주곤 한다. 서울충무초등학교의 국궁교실은 아이들에게 선조들이 지켜온 '예(禮)'와 조화의 힘을 길러주고 있다. 아이들은 어린이다운 천진함으로 사라져가는 한국의 전통 무예 '국궁'의 미래를 지키며 훗날 삶의 바탕이 될 내면의 힘을 키운다.

글 이수정 사진 황지현

서울충무초등학교 국궁교실 운동장에서 울려 퍼지는 국궁 예찬

몽치면 한다

서울충무초의 1등 자랑거리, 국궁

“얘들아, 궁도9계훈 한번 순서대로 외워볼까?” 지난 7월의 목요일 아침 10시, 서울충무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어린이 국궁교실이 시작됐다. 궁도9계훈이란 국궁에 입문한 이들이 익히는 9가지 교훈을 뜻한다. “인에덕행, 정심정기, 예의엄수...” 어른들에게도 낯선 한자이지만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그 뜻까지 답한다. 궁도9계훈과 더불어 아이들이 사법(射法)에 대한 지침을 담은 집중제원칙을 외는 일은 매시간 궁궁교실에서 빠지지 않는 과정이다.

“점수를 내는 데 집중하다 보면 선수들끼리 매너를 잃는 경우가 많잖아요. 국궁은 예에서 시작해 예로 끝나는 스포츠예요. 활쏘기의 기술을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선조들의 예법을 익혀 아이들이 내면을 바르게 다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2019년부터 시작된 서울충무초의 국궁수업은 올해로 6년 차이다. 2018년 당시 김동택 교장이 학교 특색교육을 모색하던 중 충무궁 정신을 국궁에 담아 학교특색교육으로 개발했다. 이

후 중구청 교육경비보조사업을 통해 교육비를 지원받아 국궁장을 설치하고 대한궁도협회의 자문과 강사를 지원받아 초등학교 고학년층을 대상으로 수업을 실시했다.

현재 4학년부터 6학년 학생들은 정규수업으로 한 학기에 15시간 동안 국궁을 배우고 있다. 몇몇 학생은 자율동아리 활동을 통해 선택적으로 국궁수업을 듣는다. 이번 해 서울충무초로 새로 부임한 박성이 교장은 대회에 출전한 아이들을 응원하기 위해 매년 국궁 대회를 찾을 만큼 국궁수업에 대한 애정이 깊다.

“올해 초 개교기념행사로 아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서울충무초의 자랑거리를 묻는 질문에 ‘국궁’을 1위로 뽑았을 만큼 이미 국궁은 아이들의 자긍심으로 자리 잡은 것 같아요. 국궁이 아이들에게 즐거운 놀이이자 몸과 마음을 키우는 힘이 되면 좋겠어요. 아마 서울에서 아이들을 위해 국궁수업을 하는 곳은 서울충무초가 유일할 거예요.”



서울스포트 2024 SEP + OCT



운동이자 놀이로 배우는 예법과 조화의 가치

재잘대던 아이들이 어느새 운동장 한가운데에서 나란히 줄을 맞춰 선다. 오늘의 첫 주자가 과녁을 향해 첫발을 내밀었다. “활 배웁니다”하는 한 아이의 우렁찬 목소리가 운동장에 울려 퍼지고 곧이어 “많이 맞추세요”라는 아이들의 격려가 뒤따른다. 이는 궁수가 첫발을 낼 때 취하는 예절, 초시례(初矢禮)다. 아이는 20m 거리에 놓인 과녁을 향해 활을 겨눴고, 이내 화살이 커다란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 과녁을 맞힌다. 전통 무예를 배운다 하여 엄숙하고 딱딱할 거라는 예상은 오산이다. 예는 지키되, 수련의 개념보다는 운동이자 놀이로 받아들여기에 운동장에선 밝고 명랑한 분위기가 감돈다. 국궁교실이 처음 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수업을 맡고 있는 이은정

강사는 “운동과 놀이로 접하는 아이들이 성인들보다 더 쉽게 국궁을 받아들이는 것 같다”고 한다. 아이들이 쏘아 올린 화살은 자유분방한 모습으로 제각기 다른 궤적을 그리며 날아갔다. 한국 국가무형유산 제142호인 국궁은 조금 낯선 스포츠다. 대한궁도협회에서 승단제도를 통해 선수들을 양성하고 매년 여러 차례 궁도대회도 열고 있지만, 아직까진 양궁만이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되어 많이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활에 조준기가 달리지 않고, 과녁에 점수 차이가 없으며, 145m의 긴 사거리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양궁과 차이가 있다. 가장 큰 차별 점은 궁도에 담긴 조화의 정신이다. ‘활을 쏜다’가 아닌 ‘활을 낸다’는 말을 쓰며, 활을 통해 자연과 호흡하고 심신을 가다듬고 동시에 활을 쏘는 이들과 상호존중을 이루는 것. 4학년 때부터 국궁을 시작한 6학년 김은유 양은 이러한 ‘조화’의 힘을 체화해 이미 활과 화살이 신체의 일부가 된 듯했다.

“몸이 이미 기억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겠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자세, 팔 기울기, 활시위를 당기는 세기 등이 자동으로 잡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집중을 잘 하기 위한 노력은 없어요. 노하우라면 잘해야겠다는 마음을 비우고 쏘는 거예요.”

아이들을 통해 되살아난 한국의 전통 무예

5학년 이다해 양은 빛나가던 화살이 과녁에 적중했을 때 제일 좋단다. 6학년 이다 양은 얼굴이나 팔에 살이 쏠려 빨갛게 난 생채기를 영광의 상처라며 자랑한다. 공부시간이 줄어들어 시간이 아깝진 않느냐는 질문에 그늘에 앉은 아이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를 만큼 국궁수업 시간이 즐겁다며 소리친다. 이들이 내보낸 화살 하나하나가 값진 기억을 남기고, 그것들이 합쳐져 어느새 이 아이들은 제 키 만한 활을 제 몸처럼 다루게 되



었다. 실력 또한 수준급이다. 올해 상반기 출전한 서울특별시 장기배 궁도대회 6학년 부문에서 17명의 학생들이 금상을 휩쓸었다.

“아이들을 가르칠 때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은 안전이에요. 안전은 국궁 경기의 예의나 규칙, 자세처럼 국궁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얼마나 지키느냐에 달려있죠. 활을 다루는 기본적인 것들을 잘 체화하면 자연히 활을 잘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남들이 안 하는 스포츠라서 좋다는 아이, 부모님이 좋아해 여동생과 같이한다는 아이, 명중했을 때의 쾌감이 좋다는 아이 등 국궁을 좋아하는 이유는 아이마다 천차만별이다. 이유가 무엇이든 박물관에 박제된 전통이 아닌 살아 숨 쉬는 전통이 서울충무초 아이들을 통해 실현되고 있다. 또한, 서울충무초 전체 학생의 30%는 중앙아시아계의 다문화학생들이다. 서울충



서울스포츠 2024 SEP + OCT

무초는 이들에게 한국문화를 알리기 위해 2학기에는 ‘행복나눔 국궁 교실’을 운영할 예정이며, 8월부터는 국궁의 저변 확대를 위해 서울특별시궁도협회와 협약식을 갖고 지역 초등학교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초등 궁도교실을 진행하고 있다. 궁도를 배웠던 서울충무초 아이들의 추억은 훗날 무엇으로 남을까. 어른들의 바람처럼 누군가는 국궁을 다시 찾을지도, 혹은 어렵듯한 기억으로 남아 잊힐지도 모른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열정을 품고 추구하는 길은 모두 궁도와 통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앞으로 만날 인생의 고난들도 그 힘을 통해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수업을 마친 아이들은 선생님이 쓴 아이스크림을 물고선 학교 밖으로 나섰다.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텅 빈 운동장을 메운다.

“아이들을 가르칠 때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은 안전이에요. 안전은 국궁 경기의 예의나 규칙, 자세처럼 국궁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얼마나 지키느냐에 달려있죠.”

이은정 강사



지속적이고 경쟁력 있는 스포츠관광 산업을 위해

최근 관광이 다양한 스포츠 활동과 결합돼 스포츠관광산업으로 정착되며, 지역 관광 발전을 위한 촉진제가 되고 있다.

국내 스포츠관광 산업의 사례를 살펴보고, 스포츠관광 산업의 성공 요인에 대해 알아보자.

글 석강훈

스포츠와 관광산업의 결합

스포츠관광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관광의 주된 목적이 스포츠를 참여하거나 관람하기 위해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이탈하여 24시간 체류하는 관광의 형태’를 말한다. 스포츠관광 산업이 하나의 주요 산업으로 정착되면서 이는 지역관광 발전을 위한 촉진제 및 사회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생활체육의 대중화, 스포츠이벤트 개최 증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변화된 여가에 대한 인식, SNS 확산 그리고 가족 중심의 여가문화 정착 등 다양한 사회적 현상으로 인해 스포

츠관광에 대한 수요와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과거 정적인 관광형태에서 벗어나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한 스포츠관광은 ‘10대 관광 트렌드’로 선정되기도 하였으며¹⁾ 이러한 스포츠관광 산업 관련 분야는 전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스포츠관광 산업의 성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스포츠관광 산업의 경제적 효과는 관광객 및 대회 참여자의 소비지출과 스포츠시설 및 인프라에 대한 투자지출로 해당 산업 내에서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직접 효과’가 있으며, 부대시설 건설, 사회간접자본 정비 등 이벤트 관련 투자와 대회 관람객 및 일반 여행객들의 소비로 인해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간접 효과’로 구분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투자로 인해 관련 산업에서 생산, 소득, 부가가치 상승을 유발하고 지역 내 고용을 촉진한다. 이러한 유발효과는 지역사회의 사회·경제·문화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한 고부가가치 산업인 스포츠관광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스포츠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특화 스포츠자원과 대표 관광자원이 연계된 스포츠이벤트 개최 및 관광 상품 개발로 지역특화 스포

츠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스포츠관광 산업은 지역 스포츠관광 자원을 활용한 스포츠관광과 국내·외 스포츠이벤트 및 활동 참여, 스포츠이벤트 관람 등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최근에는 지역특화 스포츠관광 산업 육성과, 스포츠도시 구축 등 스포츠관광을 활용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활발한 움직임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중 국내 지역특화 스포츠관광 산업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SUPrise 스포츠관광 특화사업(2020년~2023년)’을 들 수 있다. 수영구 광안리 지역의 자연환경(낮은 파도, 좁은 해변 등)을 고려해 해양스포츠인 SUP(Stand Up Paddleboard)를 지역특화 스포츠 종목으로 선정하여 지역특화 스포츠관광 산업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및 이벤트를 통해 많은 스포츠관광객을 유인하고 있다.

수영구는 지역 내 관광 인프라와의 연계 강화를 통한 방향 설정, 행정기관을 중심으로 한 해양스포츠 체험프로그램 운영, 다양한 홍보 채널 도입, 관련 인프라 시설 구축(사계절 모바일사위장, 이색 조형물 등), 지역 대학과의 업무협약, 지역 업체 참여를 위한 MOU 체결 그리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SUP Zone 설정) 등 산·관·학 협력 체계를 구축하였다. SUP 국내대회를 유치하고 사업 종료 후 자생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제대회 유치를 위한 행정적 절차를 준비하였다. 2022년에는 고도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 방안을 수립하고 국내 최초 SUP 국제대회인 ‘2022 APP WORLD TOUR’를 개최하였다. 관련 분야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관광 상품과의 연계를 추진하여 광안대교 배경의 ‘광안리 M(Marvelous) 드론 라이트쇼’, 대한민국 대표 해양축제인 ‘국제해양레저워크(KIMAWEEK)’와 연계, 소비자 트렌드에 맞는 캐리커처(펭수, BTS 등) 조형물 제작, SUP 보드를 이용한 해상영화관람 프로그램 운영, Moon Light Tour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 자연 환경을 스포츠관광 산업으로 승화시킨 우수 사례라 할 수 있다.

지역특화 스포츠관광 차별성 확보해야

이러한 우수 사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의 높은 의지와 관심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부산광역

시 수영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해양스포츠 전문관’을 채용하여 사업추진 및 산업 발전을 위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였으며, 이들의 고용안정을 통해 사업 및 산업의 지속성을 보장하였다. 이들을 ‘행정문화국 문화관광과’ 산하 ‘해양스포츠계’에 편성하여 관련 부서와의 시너지 효과를 유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지역특화 스포츠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SUP Zone을 방문하는 관광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2021년 3만 4,000명 → 2022년 6만 명 → 2023년 6만 1,000명 : 연 평균 40% 증가), 관련 분야가 활성화되면 지역 내 민간 SUP 전문점도 2022년 4곳에서 2024년 6곳으로 150% 증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²⁾

지역특화 스포츠관광 기반 구축과 함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급변하는 국내·외 스포츠관광 산업 시장의 환경 변화와 지역별 여건 등 다각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지역 관광활성화 정책과 연계된 통합적 접근과는 별도로 지역특화 스포츠관광만의 차별성 확보와 객관적 성과관리를 위한 관리 지표 개발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의 차별화된 스포츠관광 산업 생태계 구축, 지속적 스포츠관광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동반 성장을 위한 문화 환경 조성, 홍보 전략의 고도화, 정보 채널 다양화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 차별성 없는 무분별한 스포츠관광 개발은 스포츠관광 산업 시장을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광안리의 ‘SUPrise 스포츠관광 특화사업’ (©수영구)



글을 쓴 석강훈은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스포츠복지학과 교수로 ‘지역 특성에 맞는 스포츠관광 자원 개발’, ‘해양레저스포츠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 등을 꾸준히 연구·발표하고 있는 스포츠관광 분야의 전문가다.

1)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10).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해양문화콘텐츠 활용방안 연구.
2) 박수빈(2024). 국제신문 ‘SUP족 몰려오는 광안리...수영구, 전국대회 등 열어 봄’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ESG 이슈 대응은 기업의 새로운 경영 전략으로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글로벌 공시기준(ISSB)을 기반으로 국내 기업의 비재무정보 공시 기준을 마련하여 2026년 이후부터 ESG 이슈와 관련된 경영 역량을 평가하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국내 ESG 공시제도 도입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이 어떠한 방향으로 ESG 경영을 추진해나가야 할까?

글 신성연



ESG 경영 사례



투르 드 프랑스 공식 스폰서 스코다의 친환경 경영 사례

2022년 투르 드 프랑스 스테이지 10 경기 중 환경 운동 단체의 시위로 경기가 중단되었으며 경찰과 대회 운영 관계자가 시위 참여자를 끌어내는 모습



©politico.eu

자전거가 스포츠로 발전한 대표적인 예가 투르 드 프랑스(Tour de France)로, 프랑스와 주변 국가를 중심으로 3주 동안 약 3,500km에 이르는 대장정을 치르는 세계에서 가장 혹독하고 유명한 레이스이다. 그러나 이 대회는 동력을 사용하지 않는 자전거 대회임에도 불구하고 방대한 양의 온실가스 배출과 쓰레기 생산으로 인해 프랑스의 정당 녹색당과 환경보호 단체로부터 비판을 받아오고 있다.

주최 측과 스폰서 기업들은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중 체코 자동차 스코다(Skoda)는 2024년 투르 드 프랑스에서 205대의 친환경 자동차(전기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제공하여, 대회 운영진과 선수단의 이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 기여했다. 이 차량들은 대회 중 선수 그룹을 이끄는 지휘와 선수단 지원 차량으로 사용되었으며, 친환경 자동차 운영을 통해 온실가스 감소에 이바지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기업의 DEI 전략과 글로벌 공급망 관리

기업이 경영 활동 과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ESG 이슈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비재무보고서 공시¹⁾가 의무화되며 글로벌 기업의 비재무 활동 비중 역시 높아지고 있다. 글로벌 기업에서는 DEI(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Diversity, Equity, Inclusion)와 글로벌 가치사슬 이해관계자 상생 등을 지속 가능 경영의 핵심 요소로 설정하고 요소별 계량화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비재무 보고서를 통해 이해관계자와 공유하고 있다.

1) 미국 SEC 상장사 기후 정보공시, EU SFDR 등



나이키의 DEI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활동을 살펴보면, '성평등 증진'을 위해 조직 구성원 중 여성 인력의 비율을 늘리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매년 이를 점검하고 있다. 2023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글로벌 본사에서 근무하는 전체 인력 중 여성의 비율은 51%이며, 관리자 이상 직책에서의 여성 비율은 44%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미국 나이키 본사 인력 중 소수 인종 및 민족 비율은 41%를 차지하고 있다. 나이키는 향후 2029년까지 8만 명의 직원이 평가하는 사내 포용성 관련 지표 목표치를 84%로 설정하고, 사업 부문별 부사장 전원이 포용적 리더십 교육 자격을 보유하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또한, 히스패닉계와 아프리카계 미국인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1,000만 달러를 투자해 현재보다 더욱 다양한 인재의 경력 개발을 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기업의 사회적 역할 비중을 높이는 전략을 수립하였다.

한편, 아디다스는 기업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급망을 전 세계에 걸쳐 운영하고 있으며, 글로벌 운영관리에 해당되는 제품의 '개발'과 '생산', '유통'은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낮은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100% 소싱을 통해 품질과 소비자 판매 가격을 관리하고 있다. EU 권역 내에 본사를 두고 있는 아디다스는 아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 파트너와의 상호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아디다스의 제조 파트너 중 74%는 최소 10년 동안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38%는 20년 이상 협력 관계를 지속해오고 있다. 아디다스는 글로벌 파트너와 제품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표준 매뉴얼은 물론 공급망 전반에 걸쳐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기업 경영 활동에서 마주하게 되는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국제복싱협회 거버넌스 사례로 얻는 교훈

합리적인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 역시 기업의 ESG 이슈 대응 역량 중 하나다.

2024년 4월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퇴출 조치에 반발하며 제기한 항소를 기각당한 국제복싱협회(IBA)는 IOC 인정 단체에서 제외되었다. IBA가 IOC에서 퇴출당한 결정적인 이유는 승부조작과 편파 판정 문제, 재정 출처와 지배구조 등 여러 가지 거버넌스 이슈에 대한 대응 방안이 적절하게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IOC가 국제 스포츠 연맹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매우 드문 사례로 그만큼 IBA의 조직 거버넌스에 문제가 많았음을 의미한다.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도 IBA는 편파 판정 논란과 승부조작 이슈가 발생해 조직 거버넌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고, 2022년 러시아 출신 회장의 재선 과정에서도 투명하지 못한 지배구조로 인한 의혹이 발생해 거버넌스가 취약함이 드러났다.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와 벨라루스 스포츠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 금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반하며 복싱 대회에 양국 선수를 출전시키는 등 독단적인 조직 운영은 반사회적 문제를 일으켰다. 또한, 러시아 연방정부가 주식의 38.4%를 소유하고 있는 가스프롬(Gazprom)과의 스폰서십 계약은 글로벌 자산운용사가 ESG에 반하는(비인도적 무기 생산, 화석연료, 인권침해, 환경과괴, 부정부패 행위 등) 기업을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는 네거티브 스크리닝(Negative Screening) 전략과는 정반대되는 의사결정으로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국제복싱협회(IBA)는 거버넌스 문제로 인해 IOC에서 퇴출당하며 2024년 파리 올림픽 운영권을 상실했다. 반면, 2028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월드복싱(WB)이 복싱 종목 운영권을 가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스포츠 분야에는 다양한 조직들이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데 각자의 조직 경영 목표를 올바른 과정을 통해 달성하고 조직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ESG 이슈에 대한 대응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

글을 쓴 신성연은 한국스포츠과학원의 스포츠산업연구실과 데이터분석센터에서 선임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스포츠산업 정책과 기업 경영, 소비자행동, 데이터 분석과 연구방법론에 관한 연구를 주로 수행하고 있다.

모든 중랑구민을 생활체육의 세계로 이끈다

중랑구체육회

314개로 많은 종목별 클럽을 보유하고 있는 중랑구체육회는 회원종목단체 지원은 물론 중랑구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까지, 한 사업에 치중하기보다 여러 분야의 균형을 맞춰가며 조화롭게 발전하고 있다.

언젠가 중랑구민 모두가 생활체육에 참여할 그날만을 기대하며 끝없이 노력하는 중랑구체육회를 소개한다.

진행 황영찬 글 김가현 사진 신현균

중랑구체육회, 절묘한 균형과 아낌없는 지원의 조화

중랑구체육회는 27개 단체, 314개 클럽, 13,000여 명의 동호인으로 이루어진, 가장 많은 종목별 클럽을 보유한 체육회다. 책임감을 갖고 종목단체와 동호인 양성에 힘쓰고 있으며, 중랑구체육회의 적극적인 지원은 우수한 성적으로 이어진다. 특히 서용기 회장은 ‘건강한 몸이 건강한 정신을 만든다’는 일념으로 중랑구의 체육 발전을 위해 끝없이 노력하고 있다.



함께하는 체육회



중랑구체육회를 이끌고 있는 서용기 회장을 만나다.

Q. 중랑구체육회는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종목별 클럽이 있습니다. 클럽 활성화를 위한 비결이 무엇인가요?

A. _____ 특별히 다른 비결은 없습니다. 그저 클럽 활성화가 되기 위한 일차적인 조건인 시설 구비와 사용 조건을 낮춘 것이 수많은 종목별 클럽 활성화로 연결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금전과 시간을 낮췄고, 올해는 구립 테니스와 파크 골프장을 개장하기 위해 여러 번의 논의를 거쳤습니다. 저희의 이러한 노력들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시설이 확보되고, 탄탄한 시설을 토대로 동호인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 같습니다.

Q. 중랑구체육회는 다른 체육회에서 벤치마킹할 정도로 각종 대회 및 기관 평가 실적이 우수합니다. 지금까지의 성과와 그 비결을 알려주세요.

A. _____ 서울시민체육대축제 2022, 2023년 2년 연속 종합 준우승과 2024년 종합순위 3위라는 높은 성적을 거머쥐었습니다. 우수한 성적을 위해서 서울시장 기대회에 27개의 회원종목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하는 등 각종 전국대회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원종목단체의 관심과 참여에 중랑구체육회의 적절한 지원이 더해져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지고, 이 결과물들이 한데 모여 중랑구의 체육 발전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Q. 회장님은 ‘중랑구민들의 1인 1종목 생활체육 프로그램 참여’ 목표를 가지고 계시죠.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A. _____ 사실 중랑구민 모두가 중랑구체육회 소속 동호인으로 편입하여 생활체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구민들에게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환경 조건을 조성하고, 아낌없는 지원이 들어간다면 모든 중랑구민이 한 종목 이상의 생활체육 현장에 들어오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래 들어 중랑구체육회의 독자적인 체육시설 관리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중랑구민들의 1인 1종목 생활체육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살신성인으로 노력하겠습니다.

Q. 중랑구체육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A. _____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프로그램’의 경우, 학교 안과 밖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랑구의 학교 안 프로그램은 배구, 레슬링, 축구 세 종목이며, 학교 밖 프로그램은 탁구, 스쿼시, 태권도, 피클볼 네 종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안팎 모두 중랑구 학생들이 중심이 되고,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 학부모들까지 관심이 많은 사업입니다. 특히 학교 안에서는 하기 힘든 수업을 학교 밖 프로그램을 통해 실현하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을 무료로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Q. 회장님이 생각하시는 중랑구체육회만의 강점은 무엇인가요?

A. _____ 저희 중랑구체육회는 특출한 한 곳에 치중하는 사업이나 행정보다는 여러 측면의 밸런스를 적절히 조절하고, 이에 맞추어 사무국과 회원종목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목적과 적법성, 절차를 과감하게 추진해 성과를 이뤄내는 외유내강이 저희 중랑구체육회만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Q. 앞으로 중랑구체육회의 향후 목표가 궁금합니다.

A. _____ 앞으로 우리 중랑구체육회의 목표이자 나아갈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중랑구 내의 신규 회원종목단체를 양성 및 발굴하고, 회원종목단체 동호인들을 위한 보조 예산들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체육시설을 확대하고, 유관단체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중랑구의 체육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은 저희가 조성해 드릴 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중랑구족구협회 소속 워터폴 남녀노소 모두를 위한 운동, 족구



우리 동네 체육 대전

중랑구족구협회의 14개 클럽 중 가장 규모가 큰 '워터폴'은 20대부터 60대까지의 다양한 회원들로 구성돼 어떤 연령, 어떤 성별이라도 함께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녔다. 특히 올해 중랑구청장배 종합 우승, 서울시장기 우승을 차지한 실력까지 갖추고 있는 '워터폴' 회원들을 만나보자.

글 김엘리, 사진 황지현

“한 여름에도 스무 명씩 모여요”

2013년 정식 창단한 중랑구족구협회 소속 '워터폴'은 구장 앞 용마폭포의 이름을 따 워터폴이라고 명명됐다. 현재까지 워터폴의 감독을 맡고 있는 김도연 감독이 창단했다고. 워터폴의 현재 회원 수는 약 40명으로 중랑구족구협회 14개 족구클럽 중 가장 큰 규모다.

워터폴은 매주 일요일 용마폭포공원의 전용 구장에서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모임을 가진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무더운 8월 첫주의 일요일 아침에도 17명의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구장에 모여들었다.

한병수 클럽 회장은 “지금이 휴가철이라 예외적으로 많이 빠졌지만 한 여름에도 스무 명이 넘는 회원들이 모입니다. 우리 회원들이 족구를 하며 서로 정을 나눈 지 벌써 10년이 넘었네요”라며, “평일 저녁 8시에서 10시까지는 '야족'이라고 근무를 마친 회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족구를 할 정도로 다들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자랑했다.

이십대 후반의 이현규 세터도 “우리 워터폴에는 20대부터 60대, 남자 여자가 다 있어 또래끼리 친해지기도 좋고 실력 비슷한 사람들끼리 팀을 이루는 것도 가능해 좋아요”라며, “특히 우리 클럽에는 2030이 거의 스무 명이 있는데, 이런 팀은 서울에서도 찾기가 어려울 걸요”라고 덧붙인다.

서울시장배 36개 팀 중 우승

워터폴 회원들은 족구야말로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스포츠라고 말한다.

한병수 회장은 “각 팀 4명씩 8명이 즐기는 족구는 공격수, 수비수, 세터 등 각자 포지션이 있고, 서로 호흡을 맞춰가면서 즐기기에 매우 좋은 운동입니다”라며, “특히 축구 등과 달리 개인플레이 위주로 진행되는 족구는 몸끼리 부딪힐 일이 거의 없어 비교적 부상 위험이 적어 나이가 들어서 하기에 부담스럽지 않아요”라고 전했다.

고등학교 때 육상 단거리 선수였다던 그는 무엇보다 족구는 팀과 단합하기에도 좋다고 말한다. 그는 “선수 간에 호흡을 맞추고, 게임이 끝나면 같이 밥도 먹고 하면서 자주 만나고 싶고, 같이 경기도 하고 싶고, 그러면서 더욱 정이 쌓이는 것 같아요”라며, “특히 우리 워터폴은 경기력이 좋아 시합을 나가면 대부분 이기는 경기를 하기에 더 재밌습니다”라며 워터폴의 실력을 자랑하기도 했다.



+OCT

워터폴은 올해 4월 중랑구청장배에서 종합 우승을 차지했으며, 5월 서울시장기에서는 전국 25개구 족구 팀 중 1등을 했을 정도로 실력으로 유명한 클럽이다.

김도연 감독은 “우리가 국내 족구 일반부에서는 가장 잘한다고 말씀드려도 되지 않을까요?”라며, “저 역시 감독으로서 우리 클럽의 족구 실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라고 자부심을 드러냈다.

워터폴의 전반적인 관리를 맡고 있는 남석희 관리이사도 전국 대회 우승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남 이사는 “워터폴에는 젊은 친구들이 많다보니 아무래도 실력이 훨씬 뛰어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사 일을 맡은 동안 서울시장기 우승을 하게 돼 보람이 큼니다”라며, “지금도 대한족구협회에서 올라오는 시합 중 참가 자격이 되면 매번 출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들 다치지 말고 안전하게 족구하며 전국대회 우승까지 해내길 바랍니다”라고 포부를 전했다.



서로에게 예의를 지키고, 건강하게

다양한 연령대와 많은 회원 수의 워터폴이 이렇게 잘 지낼 수 있는 비결은 뭘까?

한병수 회장은 “모든 회원들이 클럽 기본 회칙을 잘 지켜주어서 큰 잡음 없이 워터폴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라고 전했다. 특히 그는 회장을 맡으며, 원래 가능했던 회장직의 연임이 불가능하도록 회칙을 개정했다고. “한 사람이 오랫동안 회장직을 맡으면 독선적인 운영을 할 수 있기에 회장은 2년이 지나면 투표를 통해 새로 선출합니다.”

8년 전 우연히 동네 식당에서 워터폴에 대해 듣고 족구를 시작했다는 남석희 이사는 워터폴이 모범 클럽으로 손꼽히는 비결로 회원 간의 배려심과 정을 들었다.

“우리 회원들은 경기를 하면서도 서로에게 힘을 주고, 누군가 잘 못하더라도 도와주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들 정이 많아서 서로의 애경사에도 관심을 가져주고, 또 같은 동네에 사니 길에서 마주쳐도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선배와 후배가 서로 도우려는 마음이 보여 매우 예쁩니다.”

그는 족구를 망설이는 사람들에게 우선 시작해보라고 권한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아도 괜찮으니 우선 한 번 와서 해보세요. 실력에 따라, 나이에 따라 어느 팀이라도 들어갈 수 있으니 부담감은 버려두고 일단 오시면 됩니다.”

김도연 감독도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여려는 자세만 있으면 얼마든지 워터폴과 함께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우리 클럽은 다양한 세대가 함께하기에 어느 정도 세대차이가 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 부분은 서로를 이해하며 감수하는 마음만 지니면 됩니다”라며, “족구는 다른 종목에 비해 부상도 없고, 장비 등이 필요하지도 않아 부담 없이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는 매력적인 운동입니다”라고 전했다.

“족구의 매력에 푹 빠져있습니다”

한병수 클럽회장

우리 클럽이 오픈했을 때부터 이곳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족구를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좋고 족구도 너무 즐거워 매력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중랑구족구협회 중에서도 실력이 좋고 회원 수도 많아 모범클럽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앞으로 회원 분들 모두 열심히 운동하고, 가정도 평안하시길 바라고 연말 송년회 때 즐겁게 한 잔 합시다!



“족구는 부상도 적고 재미있는 스포츠예요”

김도연 감독

2013년 ‘워터폴’을 창단해 꼭 감독직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팀에는 젊은 친구들이 많고 또 실력도 좋아 자랑스러워요. 족구는 다른 종목에 비해 부상도 적고 아기자기한 기술들이 많아 재미있는 스포츠예요. 다만 감독으로서 회원들의 실력 차이가 조금 안타까워요. 그만큼 회원 모두의 실력 향상을 위해 더 열심히 지도하겠습니다.



“사람이 좋아 계속할 수 있었어요”

남석희 관리이사

워터폴 관리이사직을 맡고 있습니다. 족구를 시작한 지 8년이 되었는데, 사람이 좋아서 계속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워터폴은 14개 중랑구족구클럽 중 가장 젊은 클럽입니다. 그래서 실력도 뛰어나고, 분위기도 좋아요. 회원들 모두 지금처럼 예의를 지키고 기분 좋은 운동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족구가 엘리트스포츠가 되길 바라요”

이현규 센터

중학생 때부터 족구를 시작했어요. 직업적으로는 어렵기도 하고, 부상을 당하기도 해서 지금은 다른 직업을 가졌지만 여전히 족구는 저에게 취미 이상입니다. 족구는 남녀노소 모두가 쉽게 즐길 수 있는 운동이라 더 매력적이고요, 개인적인 바람은 족구도 엘리트 스포츠가 되어 족구를 잘하는 사람도 인정받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스포츠의 기본, 체조의 부흥을 위해

서울특별시체조협회 장재돈 회장



회원종목단체장을 만나다

모든 스포츠의 기본이자, 남녀노소 누구나에게 좋은 운동 '체조'. 장재돈 서울특별시체조협회 회장은 "미디어에서 너무 화려한 체조를 접하고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 체조는 개인의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운동이자 모든 스포츠의 기본"이라며, "더 많은 이들이 체조의 매력을 알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글: 김엘진 사진: 신현균

장재돈 서울특별시체조협회 회장은 초등학교 시절 체조를 시작해 중학생이었을 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개인 종합우승을 차지했던 선수이자 20여 년간 수많은 선수들을 키워낸 지도자이기도 하다. 넘치는 현장 경험을 가진 장재돈 회장이 이끌고 있는 서울특별시체조협회를 소개한다.

Q. 서울특별시체조협회 회장이자 대한체조협회 부회장으로 일하고 계신데요, 회장님과 체조의 연이 깊다고 들었습니다.

A. _____ 서울체육고등학교 1회 졸업생이자 오랜 기간 선수로도, 지도자로도 임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선수일 때는 전국체전에서 우승하기도 했고, 지도자로 있을 때는 양태영 선수, 이정식 선수, 김은미 선수 등 제자로 있던 선수들이 올림픽에 나가 좋은 성적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젊은 시절부터 대한체조협회 경기부장, 경기위원장 등 여러 직책을 맡으며 삶 내내 체조와 함께했습니다.

Q. 2021년 당선 후 지금까지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체조회를 이끌고 계신데요, 서울시체조협회의 성과는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A. _____ 우선 서울시체조협회가 지난 3년 동안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 등에서 계속해서 종합 우승을 거뒀다는 점에 가장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교육청 등과 연계해 체육 전임 지도자들을 많이 확보한 부분도 성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협회 전임 지도자는 현재 25명으로,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선수 실업팀을 남·여 모두 가지고 있는 곳도 국내 체조협회 중 유일합니다.

저는 우리 협회가 거둔 이러한 성과는 서울특별시체육회의 체계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파리 올림픽에 남자 기계체조 김한솔 선수가 무릎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했고, 우리나라 체조가 더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한 점이 아쉽네요. 다음에는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서울특별시체조협회를 이끌며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A. _____ 뻘한 이야기지만 그래도 단체를 운영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협회 운영은 물론 지도자

들 간의 교류와 소통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 서로의 정보나 기술을 전달하고, 교수법 등도 공유하며 더욱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주 만나고, 많은 대화를 나누고, 도움이 필요할 때 협조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도 대부분의 시간에 사무실에 있기보다는 학생들과 지도자들을 만나러 다니며 대화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Q. 서울특별시체조협회에는 초등부부터 대학/일반부까지 다양한 팀이 등록되어 있는데요, 각각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는지 궁금합니다.

A. _____ 모든 팀이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초등부를 운영하는 데 가장 많은 힘을 쏟고 있습니다. 중등부부터 대학부의 경우에는 각자 열심히 하기도 하고, 체계적인 커리큘럼도 있으나, 초등부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체조의 경우에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조기 훈련을 시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나 국내에는 체조의 저변이 부족해 항상 아쉬움이 큼니다. 그래서 저도 초등학교에 자주 찾아가서 학교장과도 자주 만나 미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수를 확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운동회 등에서 시범을 보이기도 하는 등 학교 내외에서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함께하는 '꿈나무 대잔치' 등도 홍보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Q. 서울특별시체조협회 회장으로서 임기 동안 무엇을 이루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A. _____ 선수 확보와 조기훈련 관련 인프라를 갖추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수가 너무 적다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일입니다. 특히 이번 파리올림픽에 갔을 때 파리 시내만 하더라도 체조 클럽이 셀 수 없이 많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또한 국제대회에서 만난 여러 선수들과 대화를 나눠보니 대부분 5살, 더 이르게는 3살부터 체조를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국내에서는 빨라도 초등학교가 되어야야 체조를 시작합니다.

체조는 빠르게 시작할수록 발전할 가능성이 더 큰 종목입니다. 그래서 파리에서 돌아온 후 병설 유치원에서도 체조를 시작할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어 교육청이나 학교장과 미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강압적으로 체조를 시키지는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체조장에서 편안하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 더 욕심을 내자면, 어린 꿈나무들이 유럽, 일본, 중국 등 체조 선진국의 다른 어린이들과 교류도 할 기회가 생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특별시체육회 뉴스

오세훈 서울시장, 파리올림픽 출전 서울시 소속 선수단 오찬 간담회 초청

오세훈 서울시장과 강태선 서울특별시체육회장은 지난 8월 19일 낮 12시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제33회 파리올림픽에 참가한 서울시 소속 국가대표 선수단을 격려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서울시를 대표해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에게 서울브랜드가 새겨진 서울 굿즈를 선물했습니다. 선수단에서는 지난 도쿄올림픽에 이어 2연속 올림픽 메달을 획득한 태권도 이다빈 선수가 서울시 선수단의 사인이 담긴 파리올림픽 포스터를 선수들을 대신해 오세훈 시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번 파리올림픽에 출전한 서울시 소속 선수단은 9개 종목 15

명으로 7개(금5, 은1, 동1)의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서울시청 소속으로는 윤지수·전하영 선수가 펜싱 여자 사브르 단체전에서 은메달 1개, 이다빈 선수가 태권도에서 동메달 1개를 획득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가 2036 서울올림픽 개최를 위해 본격적으로 뛰어야 할 시점이 왔다”라며, “잘 준비해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배들이 서울에서 역량을 활짝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강태선 서울특별시체육회장은 “2036 서울올림픽의 유치 위해 다양한 종목들을 육성하며 서울시와 함께 발맞춰 나아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오찬에서는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의 소감과 앞으로의 목표를 밝히며 행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2024 파리올림픽 출전 서울특별시 소속 선수단 대회 결과

지난 7월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17일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었던 제33회 파리올림픽의 뜨거운 열전이 막을 내렸습니다. 대한민국은 종합성적 8위(금 13, 은 9, 동 10)의 우수한 성적으로 이번 대회를 마쳤습니다. 금메달 13개는 2008년 베이징, 2012 런던올림픽에 이어 역대 최다 금메달 타이 기록이며, 전체 메달 수 32개는 서울올림픽의 33개(금 12, 은 10, 동11)에 이은 역대 공동 2위의 기록입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2024 파리올림픽에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서울시청)를 비롯 총 9개 종목에서 15명의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또한, 펜싱 사브르 여자 단체 윤지수·전하영(서울시청) 선수 은메달, 태권도 여자 +67kg급 이다빈(서울시청) 선수 동메달, 양궁 개인전·단체전·혼성 단체전 3관왕 임시현(한국체육대

학교) 선수, 펜싱 사브르 남자 단체 구본길(국민체육진흥공단) 선수 금메달, 사격 25m 권총 개인전 양지인(한국체육대학교) 선수 금메달 등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나라 최초 여자 배영 200m 준결승에 진출한 이은지(방산고) 선수, 파리올림픽에 출전한 모든 선수 중 최고령인 불혹의 브레이킹 레전드 '홍텐' 김홍열(도봉구청) 선수 등 우리 선수들의 아름다운 도전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구분/소속	종목	성명	최종 성적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 (서울시청)	핸드볼	송지영, 정진희, 우빛나, 조은빈	조별 예선탈락(1승 4패)	
	펜싱	윤지수, 전하영	사브르 여자 단체 은메달	
	스포츠클라이밍	서채현	콤바인 여자 결선 진출(6위)	
		이도현	콤바인 남자 결선 진출 실패(15위)	
	태권도	이다빈	태권도 여자 +67kg 동메달	
서울시 소속	국민체육진흥공단	펜싱	구본길	사브르 남자 단체 금메달
	한국체육대학교	양궁	임시현	개인전·단체전·혼성 단체전 금메달
	요넥스	배드민턴	전혁진	남자 단식 예선 탈락
	방산고등학교	수영	이은지	여자 배영 200m 준결승 15위
	한국체육대학교	사격	양지인	권총 25m 금메달
	도봉구청	브레이킹	김홍열	조별 예선 탈락

서울특별시체육회 뉴스



서울특별시체육회, 한국체육대학교에 제2차 훈련지원비 지원
 서울특별시체육회(회장 강태선)는 강원도 속초에서 해양 훈련 중인 한국체육대학교(총장 문원재)에 올 초 1억 원의 훈련지원비를 지원한 데 이어 지난 7월 19일 5,0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했습니다.
 서울특별시체육회는 이번 지원을 통해, 한국체육대학교의 서울시 소속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며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경기력 향상을 통해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체육대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우수한 체육 인재 양성 및 체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서울특별시체육회, LG전자와 업무협약 체결

서울특별시체육회(회장 강태선)는 지난 6월 28일 여의도한강공원에서 서울특별시, LG전자와 함께 장애인 및 운동 약자를 위한 사회공헌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2월부터 LG전자와 함께 시민들이 여의도 둘레길(8.4km)을 걷고 달릴 때마다 1km당 100원씩 적립되는 '서울시 릴레이 기부 챌린지 런(이하 기부런)'을 진행했습니다. 기부런은 약 4개월간 78개의 리닝코루가 참가해, 총 3,000만 원의 기부금이 적립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체육회는 시민들의 참여로 조성된 기부금을 LG전자로부터 전달받아 뇌병변 장애인들의 10km 이하 마라톤 완주 프로그램 '프레임러닝'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도심 속 걷길! 2024 제5차 한강명산트레킹 개최

서울 도심 속 한강과 명산을 트레킹하며 자연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시민 힐링 프로그램 '2024년 한강명산트레킹'의 다섯 번째 행사가 지난 8월 17일 반포한강공원에서 열렸습니다.
 '한강명산트레킹'은 서울특별시체육회(회장 강태선)의 대표 시민 참여 프로그램으로 서울 내 다양한 트레킹 코스를 발굴하고, 서울의 아름다운 견기 코스를 알리기 위한 목적이며, '2024년 한강명산트레킹'은 연말까지 총 7회 운영 예정입니다.
 한강명산트레킹은 초등학교 이상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는 무작위 추첨을 통해 800명을 선정하며, '동행·매력특별시'라는 서울시 슬로건에 발맞춰 스포츠 취약계층 등을 우선적으로 선발할 예정입니다. 참가 신청은 서울특별시체육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로 진행되고, PC 또는 모바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회원단체 뉴스

중구체육회, 제19회 중구협회장배 탁구대회 성황리 개최

지난 7월 13일, 충무스포츠클럽에서 '제19회 중구협회장배 탁구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중구탁구협회 주관으로 진행되었으며, 다양한 연령대의 선수들이 참여하여 열띤 경쟁을 펼쳤습니다.
 대회에는 총 25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개인전과 단체전 등에서 기량을 겨루었으며, 각 경기는 많은 동호인의 뜨거운 응원 속에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중구 내 유망 선수들이 뛰어난 실력을 선보여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유승철 중구체육회장은 "탁구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향후 더 많은 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특별시유도회,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대비 합동훈련 및 모서훈련 성료

서울특별시유도회(회장 이천우)는 지난 8월 5일부터 8월 7일까지 사흘간, 한국체육대학교 유도장에서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대비 합동훈련 및 모서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초등부, 중등부, 대학부, 성인부 등 총 500여 명이 참여한 이번 모서 훈련은 일 년 중 가장 무더운 날 초보자부터 원로 유도인까지 모두 모여 함께 땀 흘리면서 훈련하며 우의를 다지는 서울시유도회만의 전통 깊은 행사입니다.
 이날 모서훈련에는 유도 9단 및 고단자들의 원포인트 레슨과 애틀랜타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현숙희 서울시유도회 심판위원장의 유도 기술 및 심판 규정에 관한 강의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이천우 회장은 "무더운 날씨에 3일간 진행되는 모서훈련에 참가한 서울시 유도인들에게 감사하다"라며 "파리올림픽에서 보여준 유도 국가대표 선수들의 투지와 헌신을 본받아 다가오는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각자 자신의 한계를 뛰어 넘는 경기를 펼쳐주시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습니다.



회원단체 행사

구분	행사명	개최일시	장소	문의
서울특별시 소프트테니스협회	2024 소프트테니스 스타트교실	09.07.(토)~11.30.(토)	노원구 수락산스포츠타운 소프트테니스코트장	02-490-2795
	제16회 서울특별시 소프트테니스협회장기 대회	10.26.(토)	도봉구 다락원체육공원 테니스장	
성동구체육회	제8회 성동구협회장기 한마음걷기대회	09.01.(일)	살곶이운동장~서울숲 (우천시, 센터 1층 대강당)	02-465-7330
	제17회 성동구청장기 검도대회	09.08.(일)	서울숲복합문화센터	
	제9회 성동구청장기 줄넘기대회	09.08.(일)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	
	제44회 성동구청장기 축구대회	09.22.(일)	살곶이운동장 외 9곳	
	제1회 성동구청장기 인라인대회	09.22.(일)	살곶이인라인장	
	제2회 성동구연맹회장기 육상대회	09.28.(토)	살곶이인라인장	
	제18회 성동구청장기 탁구대회	09.29.(일)	금호스포츠펠트	
	제6회 성동구청장기 풋살대회	10.06.(일)	응봉축구장	
	제12회 성동구연맹회장기 댄스스포츠대회	10.06.(일)	위너스댄스스포츠	
	제3회 성동구청장기 산악대회	10.12.(토)	미정	
	제5회 성동구청장기 국학기공대회	10.12.(토)	성동구청 대강당	
	제8회 성동구청장기 자전거대회	10.12.(토)	응봉역자전거교육장	
	제45회 성동구협회장기 축구대회	10.13.(일)	살곶이운동장 외 9곳	
	제14회 성동구청장기 체조대회	10.13.(일)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	
	제25회 성동구청장기 볼링대회	10.13.(일)	유니온스타볼링장	
	제8회 성동구청장기 궁도대회	10.13.(일)	살곶이정 궁도장	
	제17회 성동구청장기 게이트볼대회	10.17.(목)	대현산배수지공원	
	제34회 성동구청장기 테니스대회	10.19.(토)~20.(일)	응봉테니스장	
제34회 성동구청장기 배드민턴대회	10.19.(토)~20.(일)	금호스포츠펠트		
제10회 성동구청장기 농구대회	10.20.(일),10.27.(일)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 서울숲복합문화센터		
제18회 성동구청장기 족구대회	10.27.(일)	살곶이운동장		

SSC & SSAD 뉴스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뉴스

2024 파리 패럴림픽, 서울특별시 선수단 21명 출전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8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제17회 파리 패럴림픽'에 서울특별시 선수단은 골볼, 탁구, 역도 등 10개 종목에 21명(선수 17, 지도자 4)이 출전하였습니다. 이는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인원입니다.

그 중 서울시청 소속으로는 패럴림픽 탁구 3연속 메달리스트 정영아를 필두로 탁구팀 3명(정영아, 장영진, 김기태), 골볼팀 4명(김희진, 심선화, 최임지, 서민지), 양궁 1명(박홍조), 역도 1명(김형희)이 파리패럴림픽에 참가합니다. 특히 서울시청 여자 골볼팀은 28년 만에 골볼 패럴림픽 출전권을 획득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는 민간(공공)기업 장애인 선수 채용 연계를 통한 장애인선수단 창단과 선수 육성 및 발굴에 꾸준한 노력을 해왔던 결과 민간기업 소속 선수 8명이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민간기업 소속 중 우수한 성적의 선수들이 있는 태권도(주정훈, SK에코플랜트)와 펜싱(조은혜, 부루벨)은 메달이 유력한 종목입니다.

그 외에도 조정 3명(배지인·강현주, 넷마블/이승호, 서울주택도시공사), 양궁 1명(곽건휘, 현대에버다임), 유도 1명(김동훈, 예금보험공사), 사이클 1명(김용기, 씨젠) 등이 파리패럴림픽에서 경기를 펼치게 됩니다.

이장호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현장에서 선수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어 기쁘다. 4년 동안 준비한 서울시 선수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가감 없이 펼쳐주시길 바란다. 언제나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는 선수들을 위해 힘껏 노력하겠다"라고 응원의 말을 전했다.



이장호 사무처장 서울시청팀선수단 격려방문

지난 8월 1일부터 3일까지 진행된 '제4회 경기도지사배 전국장애인양궁대회'와 '제13회 인천광역시장애인전국장애인탁구대회'에 참가한 서울특별시청팀 선수단을 격려하기 위해 이장호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이 경기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제4회 경기도지사배 전국장애인양궁대회'는 수원 보훈재활체육센터 양궁장에서 진행되었으며 서울시청팀 3명(고성길 코치, 박홍조·이지훈 선수)이 참가하였습니다. 서울시청 양궁팀은 5개의 메달(금3, 은2)을 획득하며 우수한 성적을 냈습니다.

'제13회 인천광역시장애인전국장애인탁구대회'는 인천 선학체육관에서 진행되었으며 서울시청팀 7명(박재형 감독, 이창준 코치, 정영아·장영진·이세호·김기태·김창기 선수)이 참가하여 5개의 메달(금3, 은1, 동1)을 획득하였습니다. 또한 개인단식에서 정영아 1위, 김기태 1위, 이세호 2위, 김창기 3위로 서울시청 선수들의 활약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장호 사무처장은 "폭염으로 더운 날씨 속에서도 열정을 보여준 선수들에게 감사하다. 앞으로도 서울시청 선수들의 꿈을 계속해서 지지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스포츠 2024 SEP + OCT

2024 제13회 서울특별시장애 전국장애인론볼대회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장애인론볼연맹이 주관하는 2024 제13회 서울특별시장애 전국장애인론볼대회'가 지난 8월 21일부터 22일까지 송파구 잠실 론볼경기장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서울특별시장애 전국장애인론볼대회는 전국 15개 시·도가 참가하여 270명(선수 176, 운영진 등 94)이 대회에 참여하였습니다.

2024 서울특별시장애 전국휠체어럭비대회



'2024 서울특별시장애 전국휠체어럭비대회'가 지난 8월 23일부터 25일까지 서울대학교 체육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장애인럭비협회와 대한장애인럭비협회가 주관한 전국휠체어럭비대회는 4개 시·도(서울, 고양, 대전, 인천)와 일본 선수단 6명이 초청되어 총 181명(선수 58, 운영진 등 123)이 참가하였습니다.

2024 서울특별시장애 전국장애인댄스스포츠선수권대회



지난 8월 25일 서초종합체육관에서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고 서울장애인댄스스포츠연맹, 대한장애인댄스스포츠연맹이 주관하는 '2024 서울특별시장애 전국장애인댄스스포츠선수권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7개 시·도(서울, 경기, 인천, 부산, 울산, 강원, 전북)에서 참가하였으며 총 115명(선수 44, 운영진 등 71)이 경기에 참여하였습니다.

2024 제2회 서울특별시장애 전국파라아이스하키대회



'2024 제2회 서울특별시장애 전국파라아이스하키대회'가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노원구 동천재활체육센터 동천빙상경기장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장애 전국파라아이스하키대회는 파라아이스하키 종목의 활성화를 위해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가 주관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서울스포츠〉를 읽으면 선물이 따라올 겨울?

Quiz event!

〈서울스포츠〉 9+10월호만 읽으면 누구나 풀 수 있는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신감을 갖고 풀어 주세요.

1. 올림픽에서 도입된 액션 스포츠 중 2024 파리 올림픽에서 처음 선보인 종목은 무엇일까요?
① 드론스포츠 ② 브레이킹 ③ 클라이밍 ④ 스케이트보드
2. 2024 서바이벌 프로그램의 세 가지 프로그램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① 마일즈 서바이벌 ② VR 영상모의사격 ③ 해양스포츠 체험 ④ 응급처치 교육
3. 〈서울스포츠〉에는 다양한 스포츠와 그 스포츠를 즐기는 시민과 동호인들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 9+10월호에 소개되지 않은 스포츠는 무엇일까요?
① 양궁 ② 국궁 ③ 농구 ④ 스케이트

참여 방법

〈서울스포츠〉 웹진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정답을 제출해 주세요.

참여 기간

10월 21일(월)까지

당첨 선물

추첨을 통해 10명에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Tall 1잔을 드립니다.



웹진 바로가기